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20 올해의 신작

창작산실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2020.12 – 2021.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아트원씨어터
컬처스페이스 엔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올해의신작

믿고 보는

2020 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연극, 무용,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프리프로덕션, 공연, 재공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입니다.

Arko Selection은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영문 브랜드로서,
심벌마크는 ART의 A와 별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검증된 작품임을 의미하는
Arko Selection의 심벌마크는 곧 관객의 작품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은 작품성을 기반으로 더 큰 무대로 진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례

연극

10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ulution of Love - 극단 김장하는 날
16 달걀의 일 - 창작집단 푸른수염
22 누란누란 - 극단 산수유
28 깐느로 가는 길 - 극단 명작옥수수밭
34 고역 苦域 -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무용

42 평안하게 하라 - 댄스 프로젝트 Tan Tanta Dan
48 BLACK - 노네임소수
54 플라스틱 버드 Plastic Bird - 최지연 무브먼트
60 호모 모빌리쿠스 Homo Mobilicus - 김남식&댄스투룹-다(Da)
66 고요한 순환 - 무용단Altimeeys
72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 YJK댄스프로젝트
78 두 개의 혀 - A Double Tongue -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84 돌 - 휴먼스탕스

전통예술

92 新 심방곡 - 신노이
98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 지기학
104 울릴 굉轟 - 임용주

창작뮤지컬

112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118 히드클리프 - ㈜엠비제트컴퍼니
124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 ㈜랑
130 인사이드 윌리엄 - ㈜연극열전

창작오페라

138 뱀이 심장을 먹었어 - 김앤리프로덕션

144 장르별 역대 선정작



고역苦域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u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 날

연극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날



일시 | 2021년 1월 8일(금) ~ 1월 17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95분
티켓 | 3만 5천원
연출 | 이영은
극작 | 극단 김장하는날
출연진 | 나은선 박지훈 추민기 문병주 채송화 김현정 김중욱

무대디자인 | 이창원
조명디자인 | 김성구
영상디자인 | 박영민
의상디자인 | 윤보라
안무 | 장대욱
음악 | 이율구
음향 | 고병오
조연출 | 길범준 김다은
기획홍보 | 아트리버

사랑에 관한 집중 탐구!
'본격교양연극'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인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랑은 본능인가, 학습인가?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양상은 어떠하며 사랑은 어디로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는가? 사랑에 대하여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 철학적 · 생물학적 · 심리학적 다각도로 접근해본다.



극단 김장하는날

'극단 김장하는날'은 2015년 결성하여 매년 겨울 함께 김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김치를 나누어 먹습니다. 김장을 하는 마음으로 매년 하나의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창작하여 그 결과물로서의 공연을 관객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공연을 추구하며, 관객들과 함께 사회를 통찰하고 삶을 탐구하며 윤리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희극과 비극을 교차하고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횡단의 예술을 통하여 연극의 본질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16년 공연된<클라우즈 clouds>,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작 <발코니 TEXT&CONTEXT>, 2020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및 2020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연기상을 수상한 <피스 오브 랜드 piece of Land>가 있습니다.



인터뷰 | 이영은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저희는 작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리서치를 하며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한 후 제가 집필을 합니다. 작품의 소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 이번 작품은 지난 몇 년간 팀원들의 연애 및 결혼에 관한 이슈들을 지켜보면서 '사랑이 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랑은 본능인가, 학습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젊은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실체에 입체적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작품의 목표였습니다. 진화란 낡고 미개한 것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 온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인류의 초기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시대적 ·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했고, 앞으로의 사랑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저희의 작품은 탐구 정신에서 시작하고 창작과정 자체는 탐험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주제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제가 도달한 지점은 '경계(境界)와 다양성'입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한 이유는? 그리고 작품 속 해설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저는 한 명의 주인공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고전플롯, 단일플롯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난 작품들은 장면과 장면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의미를 통해 맥락이 더욱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었지만 이번 작품은 좀 달랐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면모'를 보다 친절하게 전달할 필요를 느꼈고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해설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인용하고 싶었는데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극 밖의 인물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칼 세이건의<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칼 세이건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극성을 충분히 갖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인물로서 행동합니다. 이 작품의 해설자 역시 사랑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찾아가는 인물이자 다양한 사례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영상과 무대 활용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관객들을 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작품 속 해설자의 대사가 매우 길고, 해설자의 대사 동안 다른 배우들은 그 대사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자료화면을 구현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해설자의 대사를 서포트합니다. 정말 다큐멘터리처럼이요. 그리고 자료 화면이자 극 중 극이 되는 인물들의 스토리와 해설자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나뉘기를 원했기에 프레임을 가진 무대를 활용할 것입니다. 마치 실험대처럼 무대 속 무대 위에 각각의 장면을 올려놓고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해설자는 프레임의 안과 밖을 모두 오갈 수 있으며 무대의 미장센을 조종할 수도 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작품 연출 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 혹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품을 한 편 쓸 때, 보통 30권 정도의 관련 서적을 읽게 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작품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인용한 책들은 <사랑과 성의 역사 (루츠 판 다이크 저)>, <사랑 (주경철, 정재승, 박지현 저)>, <사랑의 역사-이성애와 동성애 그 대결의 기록 (루이 조르주 탱 저)>, <질투 (피터 투이 저)>, <올 어바웃 러브 (벨 훅스 저)> 등입니다. 그리고 장면 연출을 위해서 많은 온라인 이미지 등을 조사하고 참조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연출적 핵심은 '따블로(tableau)'입니다. 한순간에 사진처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제시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작품은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의 사과'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젊은 남녀 간의 이성애적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사랑의 결론은 결혼이며 그 결혼을 통해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이룩하는 것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재생산되고 실제로 사회 시스템의 주축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그 정상적인 것을 더듬어 나가다 보면 어디엔가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삶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너머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며, 비정상적으로 치부되는 곳에 놓인 삶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정상적인 삶-비정상적인 삶, 주류의 삶-비주류의 삶 등 많은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보았고 현재도 종종 크고 작은 입장의 변화를 겪곤 하는데, 주류의 위치에 속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어느 지점에 존재하건 타자의 불편함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는 빨갛다고 생각하고 흔히들 빨갛게 그리도록 학습되어 왔지만, 사실은 노란 사과도 있고 보라색 사과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컬러의 경계 또한 명확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경계 위에 혹은 그 너머에 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주체는 우리니까요.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젊은 극단 답게 작품 출발점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참신했다.
사랑이 진화한다는 전제, 시대별로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살펴
현재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콜라주의 형식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무대화 하겠다는 실험정신 등등."

"예술적 관점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관점은 드러나지 않지만, 보편적인 주제와
시사교양식의 학습장으로서는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작품에서 제공하려는
사랑의 양상이 제한적이고 백과사전류의 정보 전달과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머무는
정도이기에 에피소드별 주제와 방향이 더 명확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담론은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에
향후 레퍼토리 가능성은 있다고 여겨진다."

"기획 면에서 보자면 '사랑의 진화'는 충분히 일반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이었다. 특히 20대 청년 관객들에게는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며,
작품의 구성과 내용 또한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레퍼토리로 지속 발전
가능성은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레퍼토리 작품이 되자면
처음 기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왜 그 많은 관계 중에 사랑이라는 메타포로 시대를 읽어내려 했는지, 과연 사랑은
진화하는지 등등의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밟을 필요가 있다."

"극단 김장하는 날이 보여준 오늘의 연극은 새롭다. 향후에도 관객들은
재미있고 신선하게 이러한 교양연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간다면, 책 한 권을 읽고 난 후보다 더한 상큼함과
생각할 거리를 주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듯하다."

"문제의식을 조금 좁히고 구체화해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하는지, 또 어떤 편견들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지를 중심으로
주제를 압축해 재구성하면 오히려 패기 있고 발랄한 작품이 될 듯하다."

"무대 뒤편의 LED전광판은 장면마다 필요한 문학작품의 표지, 도표 등을
투사하며 효과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사각의 형광 프레임에 갇힌 네모난 바닥과
아마도 실험보고서라는 설정에 맞춘 듯한 조명의 변화는 '사랑의 진화',
그것이 '사랑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지향했던 작품의 의도를 염두 할 때
좀 차가운 느낌이었다. 12개의 다른 장면들에 각기 다른 인물들로 계속 변화된
캐릭터를 보여줬던 배우들의 순발력 있는 연기는 인상적이었다."

"사랑에 관한 주제는 보편적인 만큼 이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끄는 데는
용이하며, 이를 시사교양 차원에서 풀어낸다는 콘셉트는 전략적인 마케팅
기능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형식의 신선함이 아닌 홍보마케팅의 결합이
눈에 띄는 요소로 이러한 측면을 잘 살린다면 작품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연극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일시 | 2021년 1월 9일(토) ~ 2021년 1월 17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첫 공연 1월 9일(토) 7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3만원
작·연출 | 안정민
조연출 | 정수경 정정훈
기획 홍보 | 플티(주)
무대감독 | 박진아
안무 | 권령은
사운드 | 목소

작창 | 김민정
피아노 | 황금잔디
타악 | 김동국
무대 | 김재란 김승희
조명 | 이혜지
의상 | 이윤진
분장 | 장경숙
음향오퍼 | 황혜원
조명오퍼 | 황윤지
출연진 | 이정미 장용철 정새별 임준식 문승배 노준영
오채령 마수연 양민음 오현종 고성관 허상진
권준희 이승연 노혜성

“단 게 달고 쓴 게 쓴, 투명한 인생의 서막”

민채의 고향, 경주의 집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민채에게 그 무덤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새 요괴의 무덤.
신라시대 때 새 요괴가 여인으로 변해 동네 남자들을 홀린 후 심장을 빼먹는 악행을 저질러 용맹한 장군이 요괴를 처단하고 무덤 속에 파묻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채는 무덤에서 수상한 문서를 발견하고 전설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녀는 고고학자가 되어 오래된 봉분을 발굴하고자 고향 경주로 내려가게 된다. 발굴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기에, 그녀는 여러 고향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잊혀졌던 유년의 기억을 마주하게 되는데 …



창작집단 푸른수염

창작집단 푸른수염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안정민을 필두로 새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극적 형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푸른수염은 <푸른수염> 설화 속에서 의문에 둘러싸인 마을 여자들의 실종을 밝히기 위해 푸른 수염의 저택으로 직접 들어가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위험을 무릅쓴 호기심을 사랑하며, 살아있는 세상을 극 속에 담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연극을 만듭니다.



인터뷰 | 안정민 작, 연출

작품 집필의 계기와 창작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창작에 영감을 준 에피소드는?

주어진 여성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떠나신 자리를 돌이켜 보다가 희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면서도 극히 성차별적이었고, 저를 꼭 껴안아 주면서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은 어떤 이들에게 특정 서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요가 대물림되면서, 여성들은 스스로 정해진 서사를 답습하고 나아가 서로 강요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서사를 지워버린다면? 다시 써버린다면 어떨까? 반복되는 요요처럼, 꼬리를 무는 서사의 대물림을 끊어버린다면, 사랑은 보다 단순한 맛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생각도 영감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여자의 얼굴을 한 영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얼굴을 한 악마도 없습니다. 악마와 영웅은 한 동전의 다른 얼굴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오이디푸스가 있고 맥베스가 있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장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문턱에 내몰아 버리는, '하마르티아', 즉 흠집이 있는 영웅이죠.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아주 끔찍하지만 그래야만 하는 어떤 사명을 앞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결단을 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민채가 영웅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저는 언제나 그런 결단 앞에서 망설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만약 그런 결단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나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는 신라시대 봉분이 있는 경주가, 음악으로는 '향가'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한국적인 요소를 다시 쓰는 것은 이 작품 말고도 저의 큰 관심입니다. 특히 경주는 신라시대를 발굴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극히 화랑 중심, 무예 중심, 남성 중심적으로 발굴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신라의 다양한 얼굴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 역사를 다시 재편하여 쓰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달걀의 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제목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달걀로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쓴 것이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달걀은 하나의 세계이고, 그 세계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펼치려면 껍질이든 탯줄이든 기존의 서사를 썰어내고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겠죠. 그것이 처음 세상과 존재로서 독대하는 달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극 중 주인공이 발굴하는 것은 새의 신, 즉 계(닭)의 신이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피해자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주로 작업해 오셨던 이유는? 그리고 작품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뒤집는 시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만을 써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개인의 눈으로 바라본 전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민채가 완벽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극 중에서 혁필이 완벽히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에서는 명백히 누군가가 피해자고 누군가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특정한 일을 하는 순간 그것은 전복됩니다. 피해와 가해의 책임귀속을 나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뒤집는다기 보다는, 모든 일과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꿈꾸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서사는 당신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민채는 어쩌면 완전한 악마도 완전한 영웅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채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객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도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찬란한 개성으로, 오직 자신만의 충만한 원리로 인생을 꿈꾼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여성영웅서사의 탄생을 목표로 했던 이 작품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고가 견고한 한국 사회의 문제적 근원을 탐색하는 한 방법으로써 영웅의 난생신화를 소재로 가져왔고 이는 좋은 시도였다."

"주연의 기량도 우수하며 제작진의 역량도 높았다고 여겨진다. 아르코 소극장의 무대를 활용하는데 과감한 선택을 한 부분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작품이 지향하는 바와 내러티브의 개연성이 그럴듯하고 참신했으나, 할머니 살해가 의미하는 바가 관객에게 까지 전해졌을 지는 의문이다. 제목과 소재의 독특함, 대학로의 내로라하는 배우의 출연은 일반 관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레퍼토리 작품으로 남으려면 사실주의적인 극의 흐름과 판타지의 섞임이 자연스럽게 극 전체에 녹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전사가 현재의 인물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필요할 일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서사를 난생신화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시 구축하고자 한 이 작품의 기획 의도와 지향성에 박수를 보낸다. 신화와 설화를 현재의 삶으로 끌어들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과 연결시키면서 그 신화를 깨부숴버리는 단계까지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도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무대화 된 작품에서는 이런 의도와 의지가 완전하게 구현되지는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충분히 이 시대에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며 할머니가 죽고 난 후 터트리는 '아이구 시원하다!'는 대사는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하지만 작가가 다음 작품을 세상에 내밀 때, 또 어떻게 자신의 화두를 관객들과 만날 것인가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은 아마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 추측해본다."

"<달갈의 일>은 삭제·배제된 여성영웅신화를 고고학 관점에서 발굴하고자 분투하는 서사와 기억에서 지워지고 묻힌 성폭력을 발견하는 개인 서사가 맞물리는 설정으로 극구조의 흥미로움이 크다. 특히 남성중심의 서사가 역사와 시대 및 개인의 서사마저 왜곡시키는 우리 환경에서 여성 서사의 복원 가치에 포착한 점은 여성작가의 시대적 소명으로도 이해된다."

"많은 한계에도 연기의 안정감은 돋보인다. 특히 이정미의 연기는 방언 화술의 구체성, 신체행동의 구성과 서사 재연의 능청스러움과 건너뛰고 튕치는 경상도식 할머니의 습성을 잘 포착해내어 인물형을 완성시킨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작의가 좋은 만큼 많은 보완을 거쳐 이 가치 있는 이야기가 세련되게 관객들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직접적인 대사로 여성들의 언어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단순히 여성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을 '여성서사'로 봐야 하는가, '여성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주어 한 번 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해줬다."

"무대연출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보다 무대가 상대적으로 큰 탓인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00퍼센트 무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무대전환을 위해 스태프(배우)가 무대 다른 편에 등장하는 것은 집중을 깨트리기도 했다."



연극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일시 | 2021년 1월 22(금) ~ 1월 31일(일)
공연시간 | 평일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1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연출 | 류주연
작가 | 홍창수
무대 | 이희순
조명 | 박성희
음악 | 류승현
의상 | 최원
분장 | 이동민
조연출 | 김경빈 홍성호
기획 | 서유덕
출연진 | 최승일 홍성춘 김용준 이종윤 우미화 김동완 신용진 박윤정 반인환

‘이 대학에는 민주주의라고는 눈곱만치도 볼 수 없고, 앞날이 더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재단과 대학본부는 학교 발전을 명분 삼아 ‘문과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또는 학교를 위해서 움직이려는 9명의 교수들의 각기 다른 입장들이 기업재단의 물질주의적 행보 안에서 혹은 사회,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어 위기 상황은 누란이 된다.



극단 산수유

극단 산수유는 창조적 열정을 가진 젊은 연극인들의 모임이다. 극단 산수유는 2008년 창단되었다. 창조적 열정을 가진 젊은 연극인들의 모임인 산수유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세상에 대한 반문을 현대적이며 감각적인 창작활동으로 무대화 하고자 한다.



인터뷰 | 류주연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작품 <누란누란>의 구상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실추되고 있는 대학의 위상과 그 위기를 바라보며 분명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은 지성의 요람이자 진리의 상아탑을 포기한 지 꽤 되었습니다. 마치 기업들처럼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생존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섭되어 대학이 사회와 국가에서 가져야 할 공공성은 계속 약화하고, 반면 이윤 추구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학은 캠퍼스 안에서 외부 사업체를 끌어들이고 교수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등 수익 증대와 자산 규모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용 자산을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학은 국가의 지원사업들에 교수들을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대학의 연구인력을 산업을 위한 연구인력으로 변환시키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문 단위를 육성하는 가운데 대학의 근본 학문 단위를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분야 및 기초과학 분야의 위기는 대학의 기업화, 자본주의화라는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란누란>은 대학의 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느 대학, 구체적으로 말해 인문학의 위기를 직접 겪고 있는, 어느 대학의 문과대학으로 영역을 좁혀서 위기 상황을 다룬 작품입니다. 극 중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단적으로 기업식 운영을 하는 대학재단, 교수들 입장을 알면서도 생존과 발전을 내세우며 재단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학본부,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교수들,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합니다. 또한 교수들은 개인의 성격과 욕망에 따라 이기주의, 보신주의, 적당주의 등 분열적인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제목을 '누란누란'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작품의 제목 '누란누란'은 한자 '누란(累卵)'을 두 번 반복한 표현입니다. '누란'은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이란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고사성어 '누란지세(累卵之勢)' 역시 이 낱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누란누란>은 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느 대학을 배경으로 삼아, 지금 현재 한국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그 위기를 절감하면서도 대응력을 상실한 다양한 인물들의 위기의식과 삶의 단면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배우들의 대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 같습니다. 핵심적인 장면과 핵심적인 대사가 있다면?

- 핵심 장면: 선교수가 혼자서 세미나 발표를 하는 장면(몰락해가는 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핵심 대사: "한국의 대학들과 교육제도가 점점 자본시장으로 전락해갈수록 교육의 미래는 암담해져 가."

지식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연출 포인트가 있다면?

낭독 심사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인의 위선' 보다는 '대학의 자본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물론 대학의 자본화를 가능하게 하고 앞당기는 역할을 지식인의 위선이 돕고는 있으나, 그 거대한 흐름 앞에 지식인은 초라합니다. 이들의 초라함은 점점 좁아지는 활동 공간, 점점 두드러지는 물질의 공간 확대 등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이는 대본에는 없는 제3의 등장인물이 되어 주제를 부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작품은 대학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교육 현실이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작품이 '위선적인 교수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올라탄 이 난파된 배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자본과는 거리를 두고 있을 법한 대학, 그러나 대학이 자본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 이를 소재로 연극화 하는 것은 참신하지는 않았으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했다. 작가의 창작의도가 대학 자체의 자본잠식화 과정이고 그 현장의 다양한 군상의 모습이었음은 확실하게 보여졌고 배우들의 탁월한 캐릭터 구축으로 인해 현실감이 있었다."

"대학의 위기 앞에 선 인간군상을 드러내는 데 기량이 뛰어난 배우들의 캐스팅이 큰 몫을 했으며, 연극이 배우의 예술임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무대가 대학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그 어떤 단체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자본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를 사는 누구에게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었다. 작품의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일 것이어서, 레퍼토리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작품은 또 올라갔으면, 관객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이야기, 시장 사람들 이야기, 정당 사람들 이야기, 이런 각층의 사람들 얘기가 사실감 있게 희곡화 되고 공연된다면 일반인들도 연극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얘기이고 현실이고, 연극이 그래서 사회의 거울이구나 하는 걸 느낄 것이다. 이 연극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연극이었다."

"극소재적으로 확장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일정한 반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인물배열과 주제의 안정성으로 레퍼토리 가능성은 크다."

"첨예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작품의 전개는 인물 간의 드러나는 파국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인상이다. 이러한 전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의 엄혹함을 고려하면 해당 작품이 그리는 국한된 일부의 나머지를 관객이 상상하게 하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철구조물을 관객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표현법을 더 감각적으로 끌어내면 작품의 의도가 더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도 인문학 연구를 평생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신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업을 지키려는 데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식의 섣부른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려주는 작품이다."

"희곡과 연출과 배우들이 잘 어우러져 멋진 연극 한 편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위치를 점하는 배역안배와 연기력이 뛰어나고, 4면 객석을 통해 공론의 장으로 설정한 공간배치도 적절하다. 리듬감 있게 끌고가는 연주도 서사의 전재와 긴장감에 잘 어울린다."

"어떤 인물도 피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자신의 역할과 계급적 존재기반에 따라 생생하게 움직이며 예측 가능하면서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차곡차곡 쌓듯이 보여주고 있다."

"교수사회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자 겉으론 학문 운운하면서 속으론 가장 세속적인 집단으로,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작품에서 이런 속살들이 풍자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고 있어서 여러 차례 감탄을 내뱉었다."

"현실의 단면을 잘라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현실의 고민을 토로하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풍자로써 주제를 예술로 승화시킨 뛰어난 작품이다."

연극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 1월 31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20분 예정
티켓 | 4만원

연출 | 최원종
작가 | 차근호
출연진 | 김동현 오민석 김왕근 최무인
최영도 이갑선 문경태

1998년, 남파간첩과 전직 안기부 요원의 영화 찍기 프로젝트

남파 간첩인 한정민과 그의 상관인 강신종의 임무는 영화광인 김정일이 지목한 한국 영화의 필름을 입수해 북으로 보내는 것이다. 착실히 목록에 적힌 영화 필름을 입수하고 있으나 마지막 한 작품을 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던 정민은 직접 북으로 보낼 영화를 찍기로 한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05년 창단된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명작이 풍성하게 열리는 옥수수밭'의 줄임말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최원종이 이끄는 단체이다. 창단 이래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에어로빅 보이즈>, <좋은 하루!>, <헤비메탈 걸스>, <청춘, 간다>, <돈키호테남극빙하>, <안녕 후쿠시마>, <블루하츠> 등의 화제작을 무대에 올렸고, 2013년 <트라우마 수리공>, 2015년 <청춘, 간다>가 서울연극제에 공식참가작으로 초청되었다. 특히 <청춘, 간다> 는 그해 대상과 희곡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
2013년 창작산실 우수공연 지원작에 선정된 <헤비메탈 걸스>는 2014년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도 선정되어 재공연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안녕 후쿠시마>가 2017년에는 <블루하츠>가 2018년에는 <어느 마술사 이야기>가 2019년에는 <외톨이들>이 2020년에는 <타자기 치는 남자>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에 선정되었고, 2018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연극부문에 <세기의 사나이>가 선정되었다.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동시대성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광대하게 펼쳐진 옥수수밭 사이를 걷고 뛰고 질주하고 점프하고 뒹구는, 그런 연극을 하고자 하며, 경비행기를 타고 몇 날 며칠 옥수수밭 위를 날아가는 경이로움과 즐거움, 감동을 그 안에 담고자 한다.



인터뷰 | 최원종 연출

작품 창작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가 공존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8년은 역사상 처음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해였지만, 1980년대와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는 암울했습니다. 1997년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는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북한에서도 국제적 고립과 가뭄으로 최악의 식량난을 맞이한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1998년은 남과 북, 모두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반공을 삶의 이념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북한의 지식인들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을 경험했고, 고난의 행군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본질적인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남과 북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반공을 삶의 이념으로 살아온 남자와 공산주의를 삶의 이념으로 살아온 남자. 이들은 철저히 이념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지만, 그 이념이 소수 권력자를 위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작품은 이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에서 이념의 의미와 실존의 의미를 묻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으로 1998년 서울의 충무로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탄생 이후 지금까지 영화는 가장 친숙한 대중예술로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을 위안하는 요소가 강한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에게 영화는 지친 삶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영화가 지닌 판타지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충무로 또한 할리우드가 그렇듯 일반 대중들에게 일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판타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작업자에게 충무로는 그저 생계가 걸려 있는 삶의 터전이죠. 이처럼 대중이 생각하는 판타지적인 공간이면서 작업자에게는 너무도 현실적인 공간인 충무로가 이 작품의 핵심 모티브인 남파 간첩이 영화를 만든다는 판타지성과 그 작업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현실적인 요소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이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 색채가 강한 시대였습니다. 벽돌만 한 휴대폰, 삐삐, 브라운관 모니터 등이 널리 쓰였던 시대인만큼 그 시대를 경험한 관객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그 시대를 모르는 관객에게는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그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의상, 음악, 소도구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품 전반에 B급 영화를 보는 듯한 감성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인데, 이러한 연출 의도는?

역사극과 시대극의 차이는 그 시대를 추억과 향수의 배경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고찰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1998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갖는 역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극은 본질적으로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삶을 다룹니다. 이 작품에 묻어나는 B급 영화의 감성은 1998년을 살았던 남과 북의 이념적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 때문입니다. 이념 또한 인간을 통해 구현되고 인간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감성은 냉전 시대가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냉전을 조장하며 극단적 이념을 내세웠던 당시 남북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를 표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념의 대립을 다룬 작품이지만 무겁지 않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작품 속 영상 활용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작품에서 영상은 무대 위에서 촬영되는 영화 장면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장치로도 사용되지만, 인물의 내면을 영상화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무대 언어가 영상 언어와 가장 큰 차이를 갖는 것은 클로즈업의 유무입니다. 영상 언어는 인물의 표정 등을 클로즈업해 그 내면을 전달하지만, 무대 언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무대에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들을 따와 클로즈업의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정민과 권복인의 내면을 상반된 영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관객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분단 이후, 줄곧 반공이라는 이념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북한도 공산주의자라는 이념이 지배해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이념이 무엇이며, 그 이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탈이념의 사회라고 불릴 만큼 전과는 달리 다원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념이란 더 이상 삶의 문제로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반공'에서 그 모습을 바꾸었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정의 내리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그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남파간첩이 평생 소원이던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게 된다는 설정과 제목, 내용에 걸맞게 중요 영화장면이 투사되는 무대, 무대 위 영화촬영 장면 등 모두 훌륭하고 흥미로웠다. "

"영화에 관한 오마주를 하는 연극이라는 콘셉트가 과감하고 참신하면서 대중적으로도 매력적이라고 여긴다. 캐릭터 설정에서 전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관객에게 작품의 친화력을 높이고 등장인물에 관한 연민을 끌어내는 요소라고 여겨진다, "

"출연진의 앙상블이 돋보이며, 작품 곳곳에 유머와 위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B급 정서를 반영한 병맛 코드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인다."

"극본 그리고 연출, 무엇보다 배우들은 코미디에 최적화된 배우들처럼 호흡과 템포가 잘 맞는다. 세트 또한 잘 준비되었고 소품들도 그렇다. 의상 또한 희극성을 돕는다. 극작, 연출, 연기, 기술적 요소, 네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느낌이다."

"영화에 관한 연극이라는 게 흥미로웠다. 영화 시나리오로 출발한 인상도 크지만, 이것을 무대화 하는 과정에서 출연진의 연기적 양상과 희극적 표현 등 전체적으로 B급 정서로 통일성 있게 전개해 나간 것이 작품의 성과로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사상과 예술을 묶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전과 궤를 함께하지만, 예술이 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 수호를 하느라 피폐해진 인물이 자기실현의 욕망, 자기 세계를 꿈꾸는 이상으로서 예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참신했다."

"표면구조와 다른 내면구조의 충실함이 주제와 재미포인트를 잘 전달하고 있었다."

"배우들의 연기는 말할 나위 없이 좋았다. 모든 캐릭터가 적당히 진지하고, 적당히 비열하고, 적당히 웃겼다."

"연극과 영화 매체의 특징을 공감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연극이 실재(인물의 사명-체제수호)라면 영화는 환상(인물의 이상)이라는 주제를 이중구조로 보여주고 있어서 뛰어난 무대연출이라고 생각했다."

"B급을 넘어 C급에 가까운 클리셰를 활용한 적절한 구성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플롯이 한국 영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은 없었지만, 반대로 친숙함에서 오는 반가움이 있었다. 한국 상업 영화를 보고 자란 이들이라면 곳곳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연극

고역 苦域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 ~ 2월 28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10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연출 | 신동일
작가 | 김성배
연출부 | 편재민 양혜지

사운드디자인 | 이율구
영상디자인 | 신성환
무대, 소품디자인 | 권민희
의상 | 이은경(E.K)
조명 | 김상호
분장 | 김근영
무대감독 | 김범석
기획 | 조영성
출연진 | 이동준 이주영 이종무 우상전 김선아 김성욱 외

타인의 삶을 위해 나의 불이익을 감내할 것인가, 나의 삶을 위해 타인을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날의 기록!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회학자 상요에게 일간지 기자 규진이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 현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 민기. 세 사람은 타인을 수용하는 게 자신과 다른 누군가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고 일으켜 가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2016년에 창단된 <공연연구소 탐구생활>은 기존의 정형적인 극단 시스템을 벗어나 사전제작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동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칼날 같이 분석하여 연극적 미학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연구소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변신>과 같이 원작이 있는 컨텐츠를 독창적으로 무대화해낸다는 평가를 받은 이래 동서양의 설화 및 신화를 재해석하는 작업과 더불어 동시대의 담론을 담은 창작극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인터뷰 | 신동일 연출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2018년 여름, 예멘 난민 오백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그들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요소로 몰아세우기도 했고, 반대로 인간에 대한 예의로써 따뜻하게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당시 예멘 난민들을 대했던 우리의 자세는 결국 타인의 수용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을 포용하거나 배척하는 자세에는 나 아닌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수용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나름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고역'으로 선정한 이유? '고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고역(苦域)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입니다. 작품 제목이면서 극의 주인공 상요가 운영했던 게스트하우스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계가 항상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이기에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아이러니의 순간순간을 맞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고역(苦域)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연출작 <카타리나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처럼 <고역>에도 언론이 등장합니다. 난민 이슈를 다루며 언론의 어떠한 면을 부각하고 싶으셨나요?

연극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이슈 독점을 위해 정론을 포기하는 언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언론들은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왜곡 보도를 통해 한 여성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지닌 언론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당시 언론들은 얼마나 객관적인 보도를 했을까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에 대해 톺아보지 않고 선정적인 이슈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막연한 공포를 주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고역>에서 등장하는 일간지 기자 규진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왜곡된 언론과는 반대되는 영역에서 등장합니다.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약자의 수용과 관련해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 본질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투영해보고자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극의 말미에서 주인공 상요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암송합니다.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타인의 수용과 관련해 상요가 견지했던 어렵고 고독한 마음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동시대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지점이 많은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것들이 이슈로써 소비되고 스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설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이어가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역>의 윤상요는 바로 그러한 지점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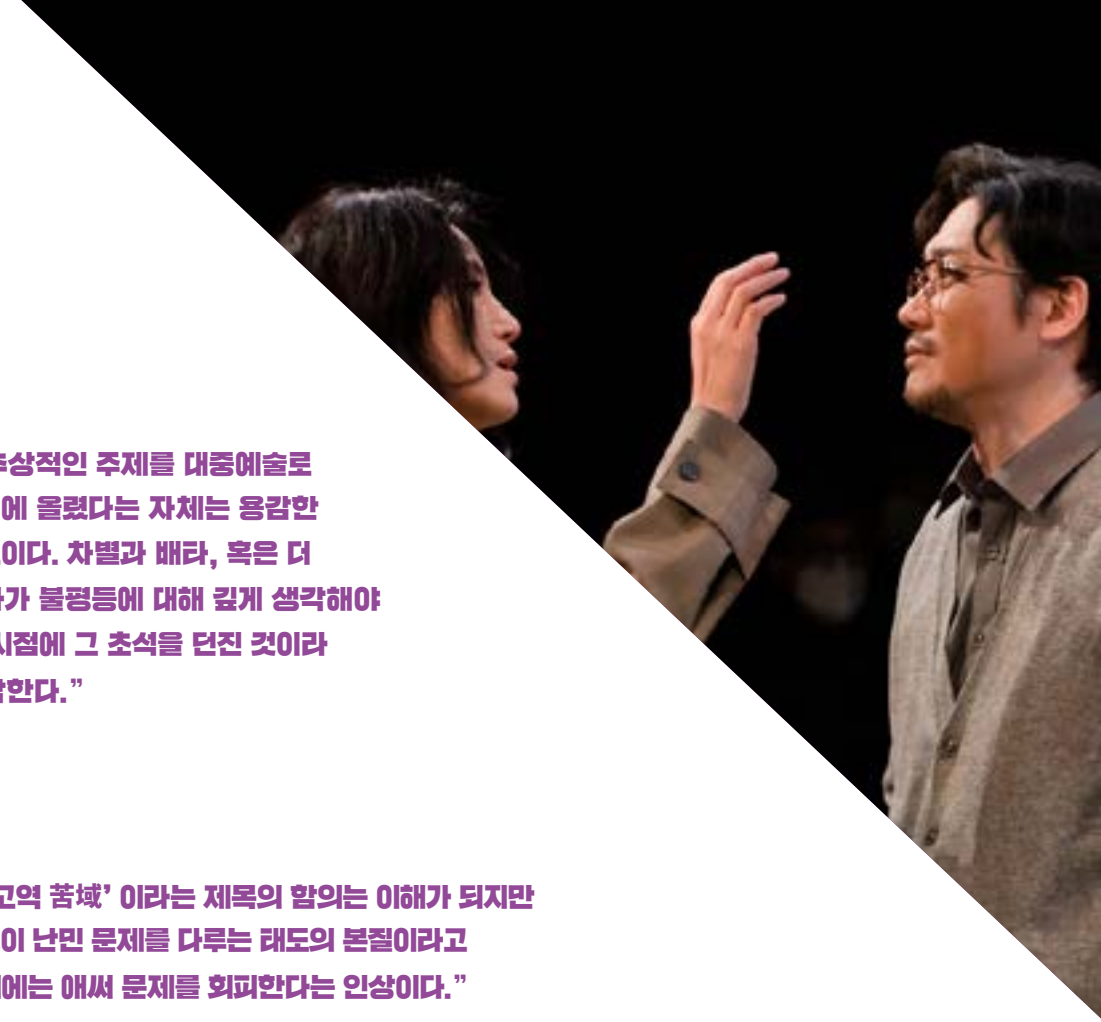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이기주의의 극한을 치닫는 현대사회에 이 연극은 '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난민을 소재로 한 것 또한 작은 예로서 큰 명제를 바라볼 수 있는 문학적 공연적 시도로서 긍정적이다."

"무거운 소재와 주제를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인 논쟁으로 풀어낸 점이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장점이자 강점이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자기의 입장을 칸트의 이론 등 어려운 논리적 근거조차 설득력 있게 얘기함으로써 관객은 어렵지만 숨차지 않게 그 논리를 쫓아갈 수 있다. 레퍼토리로서의 가능성은 사람 냄새를 좀 더 작품에 녹여낼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논쟁이다. 극장 바깥에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극장 안에서 고민하게 해준다면 그건 연극의 자리이고 가치라고 여긴다. 이 작품이 그랬다."

"공연 소개는 난민이라는 소재에 집중되어 있으나 공연 자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검열해야 하는 피해자 딜레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관적인 인물이 그려내는 닫힌 결말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닫아주어 공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탁월하게 나타내었다."



"추상적인 주제를 대중예술로 무대에 올렸다는 자체는 용감한 시도이다. 차별과 배타, 혹은 더 나아가 불평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그 초석을 던진 것이라 생각한다."

"'고역 苦域' 이라는 제목의 함의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난민 문제를 다루는 태도의 본질이라고 하기에는 애써 문제를 회피한다는 인상이다."

"난민과 경제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했다. 억눌린 분노와 상처를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모든 배역들이 그 부분들을 잘했고, 긴장을 풀어주는 외국인노동자의 연기도 좋았다. 하지만 아역들이 반드시 필요했나 하면 역시 산만한 구성이었다."

돌
휴먼스탕스

두 개의 혀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고요한 순환
무용단Altimeets

호모 모빌리쿠스 Homo Mobilicus
김남식&댄스투룹-다(Da)

플라스틱 버드 Plastic Bird
최지연 무브먼트

BLACK
노네임소수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예마

무용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 12월 13일(일)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안무 | 최진한
음악감독 | 최혜원
무대디자인 | 장성진
의상디자인 | 최인숙
조명디자인 | 김철희
무대감독 | 김진우
출연진 | 주하영 김정수 손정현 정재우 최진한
기획 | 댄스 스토리

평안(平安) ;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 불안한 인생을 대체, 누가, 바라보려 하겠습니까?”

나는 일상의 묵상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개인적 바람을 독백한다. 그 간절함이 ‘어느 날, 무엇을, 어떠한 평안함을 바라며 이토록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하였다. 내가 나를 가만둘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유로움이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내가 만들어낸 허상. 그것과 충돌하고 부딪쳐보며 나의 바람인 안녕에 다가가는 나와 또 다른 나인 당신을 만나보려 한다.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프로젝트 형식으로 작업을 만들어가는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잠재되어 있는 개별적 사고들을 춤의 사유로
확장하고, 다양한 즉흥적 움직임을 통해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독창적인 춤을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끌어낸다.
자전적 경험을 춤의 서사로 만들어 춤 안에 나를
담고, 이것을 다시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관객과의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주요 안무작으로는 <Down the Rabbit Hole>,
<WOman-돌을, 던지다>, <우물>, <A ! man>
등이 있다.

최진한은 대체로 자신의 자전을 춤의 서사로
채택하는 춤판을 열어왔었다. 그가 그의 춤이고,
그의 춤이 그 자신이며, 그 자신의 서사가 우리를
침수시키려 한다.
- 춤 웹진 김채현 무용평론가의 <우물> 평론 중



인터뷰 | 최진한 안무가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됐나요?

본 작가가 일상의 묵상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바람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의 기준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의 생활 수준을 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평안을 바라는 나는 그럼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가,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이토록 평안을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평안은 어떠한 안전한 상태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적 요소를 도입한 '댄스드라마'라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또 관객들에게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

전작 최진한 모노댄스드라마 연작으로 만들어진 작업들은 모노드라마 극 형태와 드라마적 서사와 장치들 춤,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작품화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기존에 제가 지향해오던 댄스드라마의 성격(춤과 극의 양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여 댄스드라마, 혼자 추는 춤의 연작 형식으로 진행해 오던 작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닌 성향이 드라마라는 형태에서 자연스레 배어 나와 <평안하게 하라>의 무용수의 몸짓과 음악, 무대 위의 공간 어딘가에 흡수되어 작업 안에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작업은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업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며 나를 발견합니다. 관객들도 저와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대 위의 불안정한 상태의 군상들을 바라보며 각자를 비춰보고 또는 자신의 기억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작품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작품의 핵심적인 오브제는 무엇입니까? '불안'을 구체적인 안무로 풀어내기 위해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가장 눈에 띄는 오브제는 접시입니다. 무언가를 담는 접시(유리)가 주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느낌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유리의 형태로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 양극성의 상태를 오브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오브제는 공간과 무용수의 신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리 접시가 주는 불안감을 확장시켜 또 다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공간에서 양극성을 가지고 찾고자 하였습니다. 무대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적이면서도 그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 무용수의 몸과 정서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 나와 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눈과 눈이 바라보는 시선. 불편한 심정. 거기서 나오는 불안감을 움직임으로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 속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본 작업의 시작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나와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수가 지닌 사고(思考)의 공통된 지점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쉽게 들여다보며 거기에 자신을 비추거나 투영해 봅니다. 그리고 현실의 자신을 불안정한 상태로 느끼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자의와 상관없는 어떠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보다 안정되고 양질의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을 보며 자신을 불안정하게 느끼는 것. 그렇다면 불안정한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정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옳은 걸까요?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아를 찾고, 제가 추구하는 평안함의 궁극적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안정된 모습인 척 서 있지만 끝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의(自意)를 들여다보며, 나의 모습에 비춰진 타인의 타의(他意)를 바라보며 사회의 현상(現象)과 이면(裏面)의 기준에 흔들림이 내 것으로 전이되는 상황, 나로 인해 나를 가만둘 수 없게 하는 것들, 불안감이 불안정하게 요동(搖動)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사회를 이해하고, 개인의 안정(安定) 추구를 위한 노력을 하며 안정함과 불안정함을 어떻게 저울질하여 스스로를 세우고 살아가는지, 불안전한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입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전반적으로 관객에게 화두를 던진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불안함에 대한 부분을 접시라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불편하고 익숙해도 항상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한발 서기, 앞발 걷기, 서로를 가르는 장벽과 같은 세트의 상징성 등 많은 요소에 섬세한 의미와 요소를 담아 냈다. 그러한 요소는 극을 이해하고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적정한 요소로 작용했고 작품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냈다."

"안무가의 개인적인 주제로 시작하여 대표 키워드로 정리, 그로부터 파생되는 움직임을 수집, 안무로 발전시키는 보편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무가의 심도 있는 예술성과 집중력, 연륜을 볼 수 있었다."

"주제는 안무가의 개인적 이슈로 출발하였으나 이를 동시대 관객에게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작품의 발전으로 이뤘다는 점에서 중견 안무가 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음 직한 주제를 충실하게 작품화 하였다. 신체와 오브제가 서로에게 오묘하게 스며들어 수행하는 몸으로써 내러티브는 가졌으나 작중 인물로서 내러티브(감정상태, 인물의 상태 등)가 좀 더 명확했으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성과 상상의 폭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무대에 대한 이해와 사용, 최진한 안무가의 안무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음악, 무용수들의 집중력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

"주제나 소재 등은 참신하여 매우 흥미로웠으나 그에 반해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소품 여러 개의 접시를 사용하였다거나 기울어진 탁자 위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접시를 보여준 장면 등은 매우 참신해 보였으나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불안함을 느낄 수 없었으며 반대로 편안한 상태로 작품을 보게 되어 아쉬웠다."

"본 공연은 특징적인 장면별로도, 전체 길이의 작품으로도 레퍼토리로 지속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장면마다 전달하는 이미지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떨림의 모티베이션이 어디로부터 출발 하느냐에 따라서 떨림 자체로 더 풍성한 내러티브를 가질 수 있으며 장면별 길이가 조금만 정리된다면 일반 관객에게도 더 확산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용

BLACK

노네임소수



● 일시 | 2020년 12월 19일(토) ~ 12월 20일(일)
● 공연시간 | 토, 일 오후 3시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러닝타임 | 80분 예정
● 티켓 | 전석 3만원
● 안무/연출 | 최영현
● 작곡 | 최혜원
● 조명 | 김철희 최영현
● 무대디자인 | 소병호 최영현
● 의상 | 최인숙
● 무대감독 | 정용진
● 출연진 | 임현진 김모든 전보람 이대호 염정연 서보권 박영성 김경민 정종웅 이진하 최정홍
● 기획 | 컬처앤유(박정수 황서빈)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속에 있다.”
– Marianne Moore

본 작품(BLACK)은 신체와 빛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충돌과 대립 그리고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중점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빛이 기존 무대의 조명 위치에서 벗어나 빛의 계획적인 각도와 거리 조작을 통해 공간 안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형태를 확장시키고 극대화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시각적인 형태를 뛰어넘어 촉각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계 선상의 미묘한 넘나듦을 시도한 작품이다.



노네임소수

노네임소수(NONAME SOSU)는 2014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으로 신체와 표현의 경계에서 몸의 구조가 가지는 기능과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실험하고 탐구하는 단체이다.



인터뷰 | 최영현 안무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본 작품의 목표는 인간의 극대화된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감정들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관한 접근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슬픔, 기쁨, 고독, 외로움, 고통, 쾌락, 긴장, 불안, 당혹감, 섬뜩함, 전율, 공포 등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며, 이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실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느낌은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 형태적인 감정들은 문학이나 회화에서 '색'에 비유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색으로 비유된 감정들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색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는 추상적인 모호함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색의 깊이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 가운데 손꼽히는 작가는 단연 '마크 로스코(Mark Rothko)'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색채가 가지는 강렬함, 형언할 수 없이 밀려드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저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격렬한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신체를 통해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열망이 본 작품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의상, 음악 등 무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감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단연 조명의 역할입니다. 이전의 조명의 역할은 장치로서의 기능, 어쩌면 무대 위에 존재하는 피사체를 단순히 가시적인 상태로 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쓰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작품에서는 조명, 즉 빛을 일반적인 기능성이 아닌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밀접한 관계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게 하고, 일순간에 극대화된 상태를 접하게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 혹은 무대 공간을 노출시킴으로써 강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적 형태의 제시이며, 본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자 차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본 작품에서 안무는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안무의 개념 혹은 의도적으로 제거된 신체 움직임은 다른 무용 작품과는 다른 질감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이는 차별화를 위해서가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무대 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결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낯선 움직임의 연결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안무의 단순함이 아닌 부수적인 장식 없이 행해질 수 있는 담백함이 다른 작품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인간의 감정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은 얼굴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하는 것일 뿐 실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삭제하거나 감정을 배제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의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한도 내에서 제어된, 구축된 얼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불편한 요소들로 모든 상황에 제약을 뒀습니다. 이런 제약들이 어느 순간 다른 상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상황 또는 어떠한 사물을 항상 관찰된 익숙한 것이 아닌, 낯설게 보기 위한 접근으로서 유의미합니다.

관객들에게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어떤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모든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빛을 이용해 눈의 왜곡을 만들어내서 마술과 같다는 착각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선, 신체의 특정 부분을 비췄을 때 그것은 다른 감정적인 궁금증을 유발하는 새로운 재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에 충분했다. "

"안무 뿐만 아니라 조명, 무대미술, 소품, 음악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근본적인 감정을 극대화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관념적 깊이보다는 시청각적 감각을 강조한다."

"공연은 첫 장면부터 커튼콜까지 관객의 집중력을 매우 강하게 이끌었다. 11명의 무용수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함없이 움직임의 밀도와 장면을 이어가는 무용수 간의 장력은 매우 탄탄하고 힘있는 작품의 인상으로 남는다."

"무대에서 빛의 사용은 무용수들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간으로 확장하며 그 과정의 장면마다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출해 내었다. 무용수들의 춤은 물론이거니와 안무와 무대, 음악 또한 그 조화를 잘 이뤄낸 작품이었다."

"창작자들은 분명 많은 훈련을 한 몸을 가지고 있고 움직임 또한 어색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블랙이 주는 그 왜곡을 즐기려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관객들에게 어둠속의 짧고 강렬한 이미지를 준 것만큼의 구성의 재미는 있지 않은 듯하다."

"마지막에 다소 늘어진 장면 전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거친다면 해당 창작작품의 레퍼토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리라 본다."

"처음 부분에서 어둠 속의 예상하지 못한 그림,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구성과 움직임, 암영으로 인해 더욱 그 강렬함을 주는 무용수의 근육은 충분히 궁금증과 비주얼적인 볼거리를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빛과 움직임의 왜곡 이후의 구성은 아쉽게도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들을 깊게 각인시키지는 못했다."

"<BLACK>은 첫 장면부터 끝까지 그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끈 작품으로 오랜만에 몰입도 높은 무용수들의 몸성으로 이뤄진 공연과 무대였다. 또한 안무와 무용수들 간의 합, 안무와 무대, 안무와 음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공연이었다."



무용

플라스틱 버드
Plastic Bird
최지연 무브먼트



일시 | 2021년 1월 9일(토) ~ 1월 10일(일)
공연시간 | 토, 일 오후 4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안무 | 최지연
연출 및 대본 | 이재환
작곡 | 양용준
무대감독 | 전홍기

무대미술디자이너 | 김종석
의상디자이너 | 민천홍
조명디자이너 | 김철희
영상디자이너 | 황정남
분장 | 최유정
사진기록 | 옥상훈
기획홍보 | 김세련 한지원
출연진 | 최지연 김성의 백주희 윤지예 김현선 배지현 손나혜 김민지 배유리 최진한 장대욱 김영찬 박동찬

지구의 거대 서사를 얘기하는
빅 히스토리(big history)는 경고한다.
생명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종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여 지구를 지배하면 그 끝은 멸망이라고…

시각적 언어로 드러난 한 장의 사진이 아프게 몸의 어딘가에 박혔다.
'알바트로스(Albatross)' 란 새가 배고픈 제 새끼에게 먹인 플라스틱이 몸에 가득 차서 죽은 어린 새의 사체(死體)이다. 어린 새의 몸속에서 나온 여러 색상의 플라스틱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것이다.
그 플라스틱 버드(plastic bird)는 지금 나와 우리 사이에서 어디쯤 날고 있을까.



최지연 무브먼트

최지연 무브먼트는 오늘의 한국 춤을 창작, 모색한다는 취지아래 창단되었다. '한국성'이라는 민족적 특질과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춤 작가의 이성적 메시지를 작품에 담고 이는 동시대적 삶을 수용하고 새로운 춤 양식을 지속시키면서 자유로운 춤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인터뷰 | 안무가 최지연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인 새 '알바트로스'의 사체를 형상화한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작품이 아프게 몸의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이번 올해의 신작은 생명이 있는 본질적인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빙하가 녹은 유빙 위에서 연주한 현대음악의 거장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 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플라스틱버드에서 춤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무용의 제목이자 핵심 오브제인 '플라스틱 버드'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자연의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새의 몸속에서 나온 형형색색의 플라스틱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것입니다. 인간의 안온한 상태가 그들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무감각했습니다. 대기는 오염되고 대지는 사막화되고 바닷물의 온도는 상승하고 숲과 정글은 불타올랐습니다. 어미 새는 배고픈 어린 새에게 맹목적 사랑으로 먹이(플라스틱)를 부지런히 날라다 먹였습니다. 그로 인해 죽어버린 어린 새의 배 속 가득 찬 형형색색의 플라스틱은 마치 슬픔을 조롱하듯 보입니다.

그 플라스틱 버드는 지금 나와 우리 사이에서 어디쯤 날고 있을까요? 플라스틱 버드는 환경을 살리려는 우리의 희망의 키워드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무대장치와 소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쌓여가는 쓰레기더미
거대한 날개를 상징할 수 있는 오브제
공간을 가로지르는 막대,
다양한 깃털,
생명을 지닌 알
날기를 희망하는 거대한 애드벌룬
무대의 수직 구도 (높낮이)
리프팅 구조
영상, 홀로그램과 함께 강한 메시지 연출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춤이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해오고 있는 것이 제 작품의 성향입니다. 작품의 주된 메시지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로 인한 춤의 영향력을 믿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버드는 생명이 있는 본질적인 환경보호의 메시지입니다. 춤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환경의 시급함을 보여주려 합니다. 자유롭게 춤을 표현하여 사회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몸과 춤의 확장으로 인한 표현의 확장을 가지려 합니다. 춤이 지닌 원래의 힘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되어지는 춤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한국적 춤사위는 물론 그것을 넘어 한국적 호흡 안에서 현대적 춤 언어를 수용하고 춤의 동작과 의미를 보편화하겠습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동시대 전세계가 직면한 대서사를 다루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 탐구 등의 리서치가 좀 더 보완된다면 자연이 겪는 고통을 인간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각성시키는 주제 의식이 더 명확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참신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주제 이미지를 안무, 연출, 무대미술, 음악, 소품, 의상 등을 통해 적절하게 실현하였다. 주요 창작진과 실연자의 역량 역시 탁월한 편이었다."

"환경 소재를 가지고 무용 창작을 하기까지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무용이라는 장르의 한계성에 벗어나지 못하였다. 움직임 개발에 다양한 움직임의 개발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한계에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는 조명과 음악도 새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히 사용되었다. 때로는 어두움으로, 때로는 입체적으로 비춰지는 조명은 우리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새의 감정이 되기도 했다. 음악은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극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특히 음악과 조명, 무용수의 움직임이 매우 잘 어우러져 7장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무와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음악, 세트, 조명, 의상과 조화를 이뤄 더욱 큰 시너지를 냈다. 특히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음악이 작품의 정서를 잘 이끌어 주었다."

"다른 무용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웠다. 극의 소재와 연출, 무대에 사용된 소품들, 무용수들의 안무까지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본 것 같아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중간중간 나오는 영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

"공연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되었는데 영상으로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다각도에서 담아내 촬영 감독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느껴졌다."

호모 모빌리쿠스
Homo Mobilicus
김남식&댄스투룹-다(Da)



일시 | 2021년 1월 16일(토) ~ 1월 17일(일)
공연시간 | 토, 일 오후 4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안무/대본 | 김남식
연출 | 이고은
드라마터그 | 이준표
조안무 | 이설아 이바다
무대감독/비주얼 디렉팅 | 정승재

인터렉티브 라이팅 플래너 | 신유진
음악감독/작곡 | 김현정
작곡/편곡 | 김민철
뉴 미디어 감독 | 이정섭
소리 및 소프라노 | 박유현
바이올린 연주 | 김형은
미술감독/영상기록 | 김에스더
의상 | 아라베스크(김소윤)
사진기록 | 임채욱 이규철
기획홍보 | 김세련 한지원
출연진 | 최재혁 이바다 김준일 송예슬 신유진 정지윤 양유정 김에스더 조현 김남식

모바일 폰이 바꿔 놓은 우리 삶의 생태계를 조망한다

<호모 모빌리쿠스- Homo Mobilicus>는 휴대폰 사용을 생활화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을 일컫는 말이며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된 후 우리 주변에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모바일 환경을 통하여 동시대적인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는 한편 움직임을 통한 진화된 공연 양식을 완성하고자 한다.

본 공연은 다음의 3가지 목적을 갖는다.
1) 디지털 통신기술과 원초적인 인간 움직임(현대무용, 드로잉)을 표현 질료로 하여 관찰자 (관객)의 자의적인 참여가 실연되는 공연을 시도!
2) 21C 통신기술(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표현양식을 탐색하고자 하며 새로운 시도의 표현활동이 대중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공연예술로 완성!
3) 모바일 환경에 중독된 일반인의 자의식 강화를 위한 공연!

댄스 투룹-다 Dance Troupe-Da

2005년 결성된 댄스 투룹-다는 창단 후, 일반 극장에서 탈피하여 미술관과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인 공간 해석 위주의 무용 작업을 선보여 왔다. 세계적인 문학(살로메, 지킬 앤 하이드, 태양의 돌, 시계태엽오렌지 등)과 회화적 소재(반 고흐, 프란시스 베이컨, 마크 로스코, 말레비치 등의 작품)을 움직임으로 재해석하는 등 차별화된 예술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마크 로스코 전시에서 주제공연 <Red Room>을 발표했고, 이 작품으로 제35회 릴라 로페스 무용 페스티벌에 서는 등 2년 연속 멕시코에 초청돼 <태양의 돌>과 <붉은 방>으로 호평 속에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갔다.





인터뷰 | 안무가 김남식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상상 속의 현실이 평범한 일상이 된 근래의 우리 모습.
눈 뜨자 시작된 휴대폰과의 '동거동락',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모바일 폰!
그 사물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됐습니다. 주요 모티브는 세계적인 그라피티 화가인 뱅크시의 작품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고, 8살 딸아이의 일상에서 그 주요 모티브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대적인 움직임으로 그려 내려는 목적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지 않고서 오로지 모바일 폰 액정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생각의 전환을 이끌고 싶습니다.

작품 속에 핵심 오브제인 '스마트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구이면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는 기묘한 물건!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이 물건을 사용하는가? 에 관한 접근으로서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마트폰/모바일 폰은 필요와 필수의 경계에 선 야누스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무대, 의상, 안무, 형식 등 관객들이 주목할 만한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작품의 무대는 일상성과 모바일 폰 속,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된 화이트 큐브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안무의 형식은 단순함 속 고도의 정밀함을 위주로 한 남·여의 듀엣이 주요한 관람 포인트입니다. 2명의 남·여 무용수가 모바일 폰을 들고서 (동영상 통화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2인무는 현대인의 일상을 무대 위로 그대로 옮겨와 특별한 춤으로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객은 공연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득 휴대전화의 액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일상성을 형식과 절제된 양식의 무대 언어로 옮겨서 무대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와 리서치 작업을 통해 그것들을 가능케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영국의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의 그림 한 장(두 남녀가 포옹하고 있지만, 상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자의 모바일 폰 속에 시선을 고정한 그림)에서 출발했고 나의 가족과 일반화된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무용 언어로 완성시켰습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모바일 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지만, 자신과 세상의 질서를 망각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활용되었으면 하는 메시지와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회복을 이끌어 내는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을 일컫는 말 "호모 모빌리쿠스", 모바일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공동체의 관계 설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는 공연이다. 그걸 위해 실시간 인터렉티브적인 소통의 시도와 카메라를 통한 시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이면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오브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창작산실의 여러 공연들이 시의적인 부분을 소재로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시의성은 분명 관객에게 공감과 흥미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호모 모빌리쿠스도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카메라워크와 이미지로 작품을 구성해 내었다. 남녀의 듀엣 씬과 안무자 자신이 추는 핸드폰 앞에서의 움직임은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표현방법이자 새로운 시각을 관객에게 보임으로써 관객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아쉬움은 그 외의 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목적성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은 듯하다."

"휴대폰의 삶을 주제로 한 것은 현 시점을 재조명하며 물질에 빠져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눈을 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소통한다는 설정은 매우 창의적이었다."

"카메라 앞에 선 무용수들 스스로 카메라 워크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이면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에 더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모바일의 렌즈는 그 쓰임을 한다. 다른 매체가 공연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게 일정 부분 효과를 내었건 아니건 간에 시도에 대한 부분이 반갑게 느껴진다."



"이 작품은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현상과 미래를 함께 구현함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현대 사회의 인간과 모바일의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인류 역사의 중요한 지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이었다. 특히 극을 보는 동안 툭툭 튀어나오는 무대 연출은 굉장히 신선하고 독창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용 공연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실험적인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모 모빌리쿠스>를 통해 전통적인 무용이 아닌 현대적인 안무와 퍼포먼스를 통해 흔히 생각하던 '무용'이라는 틀을 깨는 작품을 만난 것 같아 즐거웠고 무용이 대중성과 더 폭넓은 관객층을 넓혀 가도록 많은 고민을 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명의 이기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삶과 행동과 관계에 관한 고찰은 동시대 예술의 주요 소재로 작용해 왔다.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이 두드러지게 참신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기 적절함은 확인된다. 창작 의도는 공연에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창의적인 연출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호모 모빌리쿠스>의 예술적 성취에서 수정 및 보강을 거쳐야 할 요소들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현이 차후 관객의 관심 상승과 레퍼토리 가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용

고요한 순환

무용단 Altimeets



일시 | 2021년 2월 6일(토) ~ 2월 7일(일)
공연시간 | 토, 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안무 | 전성재
조안무 | 한정미

음악감독 | 유광재 서희숙
조명감독 | 이상봉
기술감독 | 이동민
무브먼트어시스턴트 | 백진주
출연진 | 무용단Altimeets단원 (정은희 김유연 김하나 박기환 안영환 이성희 고유론 김승현 김원영 배진호 허종근 김동현 민경원 윤혜진)

윤회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삶의 순환

안무자는 삶의 시작을 탄생이 아닌 소멸로 보고, 그 소멸로부터 탄생한 야수적 본성과 인간사이의 갈등, 삶 속의 희망과 환희, 생명의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구성한다.

1.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삶의 단계를 하나하나 지나가는 인간군상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삶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다양한 예술장르의 Performativity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드로잉 퍼포먼스, 영상의 시각적 자극, 라이브음악의 청각적 자극을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한다. 내러티브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와 에너지의 '수행성'에 중점을 둔다.

3. 새로운 질감의 움직임 개발을 통해 표현의 극대화 추구
동양의 정체성과 전통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무용 어법을 접목한 안무자와 무용수들의 작업으로 우리 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작품을 추구한다.

무용단 Altimeets

Artist +Ultimate + Meets
예술가 + 궁극적인 + 만남
=Altimeets

무용단 Altimeets (무용단 알티밋) 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한국무용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축적해온 예술적 기량과 소양을 통해 동시대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과정의 아름다움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한국 춤의 정신이 그러하듯,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고자 하며, 춤에 내재된 깊은 한국적 정서를 도전적이고 다양한 현재의 움직임 언어로 풀어내어 세계가 공감하는 한국 창작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젊은 한국 춤꾼들의 모임으로서 우리의 시도가 예술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한다.





인터뷰 | 안무가 전성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유한한 인간의 삶이 영원한 듯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무대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1년 무대에 올린 작품 <what more>이후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동양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공수래공수거'-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간에 대한 얘기지요.

작품의 제목을 '고요한 순환'으로 정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나요?

윤회라는 순환을 가장 큰 모티브로 잡아'가까운 관점에서는 치열하고 복잡한 인간사의 반복이 멀리서는 고요한 순환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무대, 의상, 안무, 형식 등 관객들이 주목할 만한 관람 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무용수들의 뛰어난 실력(여러 방면에서)이었으면 합니다. 또 서양으로 시작해 동양으로 이동하는 라이브음악(엘렉톤→미디음악→국악기)과 무대에 투사하는 시각 작품들과의 조화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 속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움직임이나 장면을 만들 때는 지나다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들 혹은 꿈에서 본 것들을 메모하고, 퍼포머들과 구현합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받는 느낌이 다르다 보니 장을 나누고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공감각적 자극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한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를 '진여'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진여'라는 공간의 경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여'와 현실 사이의 오고 감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하려 한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편하고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하시고 무용이라는 신체 언어가 가진 무한한 표현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안무가 전성재는 '삶의 시작을 탄생이 아닌 소멸로 보고, 그 소멸로부터 탄생한 야수적 본성과 인간 사이의 갈등, 삶 속의 희망과 환희, 생명의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고요한 순환>을 구성한다. 해당 작품은 '동양의 정체성과 전통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무용 어법을 접목한' 안무가의 작품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컨템포러리한 한국창작무용으로 예술적 성취가 확인된다. 한국무용계에서 비교적 젊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조성되어가는 흐름에서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급 조절이라던가 장면전환 등에 있어 보완될 사항이 없지 않으나 향후 수정을 거쳐 작품을 발전시켜갈 경우 관객의 호응 및 레퍼토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본다."

"무용수들의 몰입도와 그들이 해석해낸 주제에 대한 해석력은 그 분위기 속으로 관객을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낸 듯 하다. 조명과 음악은 장중하지만 그 에너지가 움직임과 잘 어울리면서 그 장중함으로 움직임이 위축되지도 그렇다고 움직임과 동 떨어지지도 않은 서로 간의 협업을 잘 만들어냈다. "

"무용수들의 집중도가 높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작품의 수준이 좋으며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과장되지 않고 진솔하여 일반관객의 심도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라이브의 강력한 사운드와 정적이 흐르는 음악은 서로 대비되어 전혀 다른 느낌의 긴장감을 주었다. 특히 정적 속에서 무용수들의 발소리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무용수들의 군무 씬은 음악없이 발소리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 느낌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의상은 무용가들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조명은 탄생과 소멸 과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조명과 음악, 정적 속에 울려퍼지는 무용수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공연보다 무용수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무대장치는 없었지만 완성도 높은 안무만으로도 만족스러웠던 공연이었다."

"무용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강해서 관객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내러티브적인 설명이나 힌트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이거나 충분한 설명을 위한 지나친 움직임적인 설명은 오히려 극의 재미와 관객의 상상력을 저해한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관객에게 친절한 설명 대신 무용수들의 강한 몰입도에서 나오는 움직임의 에너지와 안무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 무대구성, 움직임과 멈춤, 음악과 조명의 절묘한 타이밍과 색감 등 공감각적인 무대요소의 결정판인 듯하다."

"윤회를 이야기하기 위해 헤르만 헤세의 '삶의 단계', 한동호 작가의 '컨너편' 등의 해석과 작품 내용이 첨언되었으며 <What More>를 원작으로 기반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안무가만의 관점과 재해석으로 탐구된다면 레퍼토리로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무용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 ~ 2월 21일(일)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컨셉, 안무/연출 | 김윤정
공동움직임연구, 출연 | 강민경 김강민 김유정 김주희 신현아 배민우 팝핀현준
음악 | 지미세르
무대 | 남경식
영상 | 신현아
조명 | 김재억
조연출 | 이경
의상 | 정호진
드라마터그 | 현지예
영상오퍼 | 허문경
기획 | 이정은

사과를 베어 문 인류의 욕망과 행복은?

인류 역사에 있어 '애플'로 상징되는 사건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뉴턴의 사과, 현대 사회의 사과(스마트폰 등)를 소재로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발견, 탐구 결과의 연장선에 있는 이 시대 인간의 위치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담아내고자 한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힘의 거대한 알고리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베어 물어 인류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현대의 인간들도 다시금 손안의 스마트폰, 달콤한 사과를 베어 물었다. 그에 대한 형벌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글로벌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 가족, 국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YJK댄스프로젝트

안무가 김윤정이 2000년 독일에서 처음 창단한 무용 단체다. 일찍이 세계적인 안무가들과 활동해 온 김윤정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안무 세계를 펼치며 단체를 이끌고 있다. 프로젝트 개념으로 작품의 컨셉과 성향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무용수들과 스탭을 영입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왔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IDance, LIG아트홀 초청뿐 아니라 독일 쉬리트마허 댄스 페스티벌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을 이어왔고,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독일 주정부, 탄츠하우스 공동 프로젝트로 <(8days)> <닻을내리다 (Leinenlos)>를 선보여 그 해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김윤정은 현대 무용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제스처와 표정, 소리, 연극적 움직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안무가로서 무용으로는 어려운 다양한 내러티브와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양한 장르를 해체하고 새로운 언어로서의 춤으로 다시 조합하려는 YJK 댄스프로젝트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뷰 | 안무가 김윤정

작품 창작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실 스마트 폰이 처음 내 손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편리함에 빠져들면서도 저는 깊은 잠재의식 안에서부터 무언가 이유 모를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의 사과의 (스마트폰)달콤함은 강렬했습니다. 어떤 형벌이 내려진다 해도 우리는 이미 이 사과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템포러리 춤을 추고 만드는 작가(안무가)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며 동시대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술은(춤) 그 자체의 미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 이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조정을 당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대로 인간 본연의 아날로그적 행복이란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이자 배경입니다.

작품의 핵심 오브제이자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사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과는 상징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그리고 과학을 상징하는 '뉴튼의 사과' 그리고 현대사회 누구나 손안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인터넷)'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과는 인류의 시작부터 필요악 같은 알고리즘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혔다는 성경에서 보면 선악과를 베어 문 형벌로 낙원을 잃고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예들인 우리 인간들은 과학을 찾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신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신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줄 수도 없고 현실적인 삶을 나아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인간들은 점점 눈에 보이고 증명되는 것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모두가 스마트 폰을 들고 다니며 인터넷세상 속에서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으며 다시금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은 무엇일까요? 이미 그 형벌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품 연구를 위해 참고했던 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다큐<소셜 딜레마>, 잘릴라 바카르, <주눈>의 마지막 대사 재구성, 인도 전통춤의 신과 자연을 표현하는 손동작, 슬라보예 지젝의 강연, 댄서들의 각자 행복한 순간 텍스트와 공동 움직임 연구 등을 참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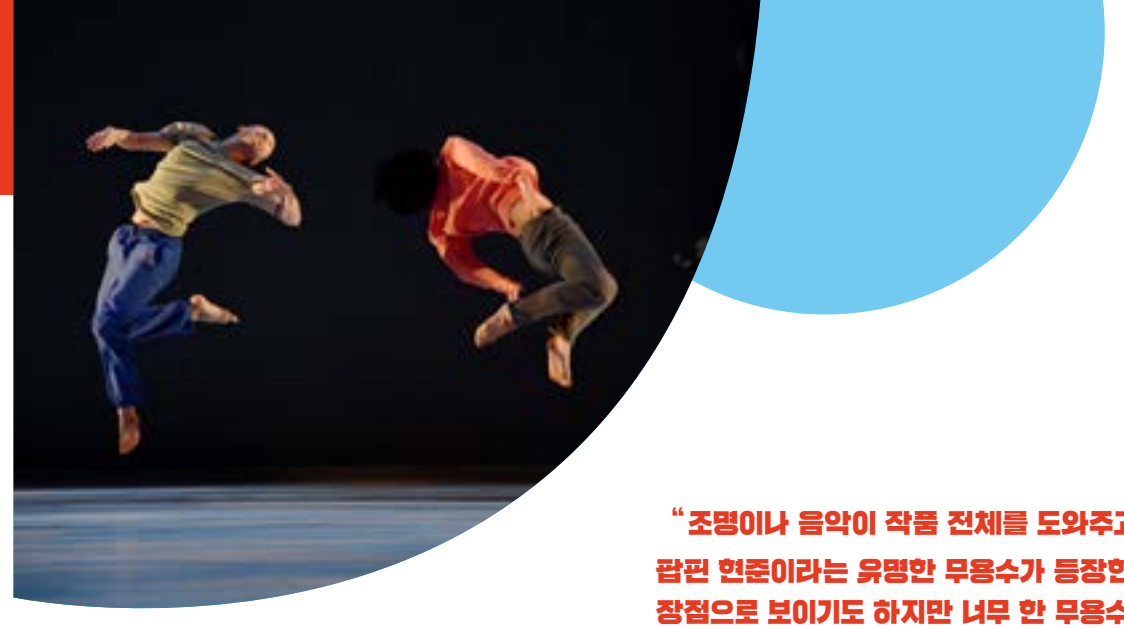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 속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관객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라 여깁니다. 일단 자유롭게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도 겉으로 보기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너무나 쉽게 정보나 미디어에 동화되어 서로 시선을 뺏고 뺏으며 춤을 추는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용수들이 각자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춤을 추는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마지막에 천진한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고 여자가 되고 노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관객들에게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이 리드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의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진실'이란 무모하고 광대하게 펼쳐진 정보와 소통의 바다속에서 각자 접하고 이해하고 수집한 선입관이 정해준 허구의 세계를 스스로 믿고 판단하는 세상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탈진실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온 세상과 너무나 쉽게 소통하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진짜 자신과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각자의 행복은 무엇인지에 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그런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길 바라며, 현대사회가 피할 수 없는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술로 풀어내는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공연의 제목처럼 사과가 상징하는 선악과의 원죄에서 현재의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스티브잡스의 애플폰으로 일어난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와 수화와 같은 신호를 통해서 서로의 소통의 중요성과 스마트화 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잘 묘사해 낸 듯 하다."

"주제 표현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이며 무용수들의 전반적인 훈련이 잘 되어있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무용수들이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하면서 대사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술적 성취가 두드러진 편이며 향후 레퍼토리로서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주제 충실성이나 작품 구현력이 확인되는 바 일반 관객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하다."

"우연하게도 선악과와 뉴턴,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상징물 중에 하나가 사과로 귀결되었다. 재미난 연결점을 만들어 내었고 안무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대담의 변화를 통해서 수화라는 기호적인 상징성과 조명과 영상의 변화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었다."

"본 작품은 애니메이션, 대사를 병행한 움직임의 전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관객 확보에 용이하며 예술성 또한 높다."

"조명이나 음악이 작품 전체를 도와주고 있었고 팝핀 현준이라는 유명한 무용수가 등장한 것이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한 무용수에게 집중되어 안무구성이 된 것 같아 이런 부분은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무용수들이 대사를 많이 소화해서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대사를 소화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감탄했다."

"극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잘 표현해 내었다. 관객에게 무용으로만 풀어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관객들조차 따라가기 버거웠을 수도 있는 부분들 이었을 텐데 영상을 통해 연출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작품보다 작품의 이해가 쉬웠고 기승전결부터 전체적인 스토리까지 가장 대중성이 높았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용

두 개의 혀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일시 | 2021년 2월 19일(금) ~ 2월 21일(일)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50분 예정
티켓 | 전석 3만원
안무 | 조현상
출연진 | 민경림 박재혁 이영실 안송은 이종은 이효선 조현상
드라마터그 | 구시연
작곡 | 김형민_SaBos
무대세트 | 조일경_걸작
분장 | 천성태_Down Celler
무대감독 | 이도엽_걸작
조명디자인 | 류백희
사진 | 옥상훈
기획 | 황서빈 박정수_컬처앤유

광대, 웃음,
그 찬란한 순간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웃는 얼굴을 한껏 칠한 광대는 관객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물간 서커스에나 있을 법한 어설픈 광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광대는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화장을 덧칠하기 시작한다.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러 페르소나들로 인해 자아를 잃어간다.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10년 창단하여 발레 움직임을 기본으로 현시대적인 움직임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젊은 무용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전문무용단체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일상 속에서 찾은 소재를 작품화하여 누구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일반 관객에게 '어렵다'라고 인식된 무용 예술을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예술로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발레축제,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내 예술 축제 참가를 통해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꾸준하게 자체기획공연을 선보이며 단체의 공연기획력 또한 다져가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댄스 위드 쿵짝>, <몸의 협주곡>, <평범한 남자들>이 있다.
COVID-19 확산 이후 댄스 필름, 온라인 강의, 댄스무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술로도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예술 컨텐츠는 <웃음을 잃지 마세요>, <HOME BALLET>, <Online Performances> 등이 있다.



인터뷰 | 안무가 조현상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다른 모습인 이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라는 복잡하고 큰 구조물에서 껴 맞춰진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에서 <두 개의 혀>는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덮고 누군가 원하는 다른 얼굴로 바꿔 가면서까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광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두 개의 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두 개의 혀>는 한 사람이 감추고 있는 다른 모습을 상징합니다. 안무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일부 현대인의 부정적인 부분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두 개의 혀>라는 텍스트가 갖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제목으로 사용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자 과감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작품의 관람 포인트를 설명해 준다면?

순수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 또는 무언가를 위해 다른 모습들로 덧칠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의 비교를 하는 것이 작품을 보는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크서클즈 댄스의 작품들은 춤이 많습니다. 발레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 다크서클즈 댄스만의 움직임이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이번 작품은 여러 사람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안무가의 아이디어뿐 아니라 드라마터그, 작곡가, 세트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여러 참여 아티스트들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컨셉이 '광대'로 뚜렷하다 보니 그에 대한 선입견이 큰 것은 약간의 걸림돌이지만, 이번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무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어 보다 풍성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자칫 작품에 대한 정답이 되어 버릴 때가 있어서 이 질문의 대답은 다음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항상 작품의 주제는 현재 안무자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서 시작해 안무작업을 통해 객관화된 모습으로 관객에게 선보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잠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두 개의 혀>는 사회에 순응하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대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느끼는 혼란과 공포를 표현함으로써 관객이 마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듯 공감하게 만들었다. 분장, 거울, 그림자, 동전 등의 소재도 이중성이라는 테마를 잘 드러냈다."

"작품의 소재나 구성이 독특하기보다는 주제를 표현해 나가는데 광대라는 소재가 은유의 대상으로 잘 맞은 듯 하다. 광대는 무대에서 웃기지만 광대가 얼굴에 눈물을 그려 넣듯 그 밝음의 이면은 원치 않는 다중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변한다."

"광대 분장 이면에 본 모습을 인간의 가면 뒤 본 모습에 빗대는 작품이 그동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창작 의도는 작품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주요 창작진과 실연자의 역량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며 예술적 수준 역시 젊은 발레 안무가로서는 적정 수준이었다."

"조현상이 이끄는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댄스는 발레계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갖춘 젊은 창작 단체로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바다. 향후 레퍼토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무와 연출의 디테일을 보강하고 무용수의 실연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신선한 소재와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주제, 모던하면서도 응집력 있는 안무와 효과적인 사운드, 조명 등은 인상적이었고, 스포츠라는 소재를 직접적이지 않게 주제와 잘 연결해 무용으로 세련되게 표현했다."

"동전이 뒤집히듯 주인공과 그림자가 자리를 바꾸는 엔딩은 진짜 나를 묻어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해 오싹한 여운을 남겼다. 춤이 경쾌하고 현대적인데다 각각의 장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기 쉬워 스토리가 있는 댄스 뮤지컬을 보는 듯했다."

"동작은 많지만 현란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끈끈하게 이야기를 연결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눌러낸 질감이라 차분하다. 발레와 현대무용의 경계라기보다는 무용단 자체의 움직임의 질감을 만들어 낸 듯하다. 클래식의 기본을 따르면서도 발레의 마임의 형태가 아닌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그 에너지와 동작의 완급을 잘 구성해냈다."



무용

돌

휴먼스탕스



일시 | 2021년 2월 27일(토) ~ 2월 28일(일)
공연시간 | 토 오후 7시 / 일 오후 4시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70분 예정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안무 | 조재혁
작곡 | 이일우
음악 | 잠비나이

무대감독 | 김성철
조명 | 신호
무대디자인 | 정승재
음향 | 오진수
의상 | 진영진
분장 | 김종한
기획 | 컬처앤유
출연진 | 강대현 김시원 김지은 남수빈 송영림 이고운 이도영 최호종 표혜인



돌의 형상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을 투영한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는 끝없는 물음에서 길을 찾는다. 우리는 삶이 다 하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한다. 자연 속 잎이 피고 지듯이 삶은 자연과 닮아 있다. 인간 자아 스스로를 하나의 '돌'이라 생각하여 그 삶의 철학을 '돌'에 담아 전달한다.

휴먼스탕스

2015년 창단된 휴먼스탕스는 'humanist'와 'resistance'의 복합어이며 민족적,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통해 역사성과 시대성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그룹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한국무용의 창작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 안무가 조재혁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은 늘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작품 '돌' 또한 자연에서 비롯되어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돌은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반석이며 큰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하나의 큰 돌인 것처럼 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체에도 돌이 생겨나기도 하며 귀 안에는 작은 돌이 올려져 있어 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죠. 우리는 삶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잎이 피면 세월이 지나 또다시 지기 마련이듯 삶은 자연과도 닮아 있습니다.

제목이자 핵심 오브제인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돌에 주목하게 됐나요?

한국 춤은 기(氣)의 운용을 중시합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중동이라 하여 마치 정지하는 순간이 무거운 돌처럼 표현되기도 하며, 한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부드러운 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는 늘 돌과 함께 해왔습니다. 원시인들의 최초의 무기가 돌이며 왕과 민족을 위해 적들을 막기 위해 성벽을 세우기도 하며 제(祭)를 위해 돌을 이용하여 파고다를 쌓거나 귀한 자를 안장하기에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돌팔매하듯 살(殺)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동시에 신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돌이 존재합니다. 승이 죽어 몸 안에 여러 개의 돌(사리)이 나올수록 현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경(계2:17) 에서도 예수를 흰 돌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돌의 모습들, 도구로서의 쓰임, 물 안에 구르는 가벼운 돌, 쥐니까 무거운 것이지 놓으면 가벼운 것이라는 이치와 삶의 철학까지 작품 '돌'에 담아 관객에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조명과 음악, 무대 등 관객들의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조명 디자이너 신호 선생님께서 조명 디자인을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 거친 면과 단단한 면의 질감 등이 어떻게 빛으로 구현되며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악은 휴먼스탕스와 여러 번의 작업을 진행했던 잠비나이의 대표인 이일우 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한국 전통악기의 사운드와 모던록의 사운드가 매칭이 되어 새로운 퓨전 음악이 탄생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몸의 섬세함과 감정선 표현에 주목하여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 속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어느 남미지역인가에 돌이 흐르는 계곡인데 물이 없이 실제 돌로만 계곡을 이루어서 마치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려 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영감을 받아 흐르는 돌이라는 장면을 안무했는데 고조된 음악의 부분이 카타르시스를 주며, 무용수들의 춤의 기교가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무겁다는 돌의 일차적 관점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가벼운 돌의 이미지에 좀 더 다가가려는 것 같습니다. 쥐니까 무겁고 단단한 것이지 놓으면 가볍고 부드러운 돌. 다양한 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춤은 여러 가지의 의외성과 객관화된 특별한 상상을 선사하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상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창작 춤이 많은 관객과 공감성을 갖는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적정 이상의 예술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무용수들의 높은 기량이 작품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컨템포러리 한국무용으로서 한국무용계의 동시대적인 창작 경향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관객의 관심을 보다 높이기 위해 주제 의미를 보다 짜임새 있게 담은 안무적 구성을 보강할 필요는 있으며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거친다면 향후 레퍼토리로도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인간 자아를 돌로 표현한 시도는 긍정적이나 일반관객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향후 재공연을 할 경우 작품이 여러 측면(소재를 어떻게 구체적화 시킬 것인가? 움직임을 어떻게 더 다양화 시킬 것인가? 등)에 연구가 있어야 레퍼토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10명 내외의 남녀 무용수들은 체형이나 기량 면에 거의 직업 무용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함으로써 작품의 심미감을 높인다. 동작의 구성적인 면에서 안무가 고유의 짜임새를 좀 더 견고하게 부각시킬 필요는 있어 보인다."

"돌에 대한 주제인데 움직임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음악이 거의 다 소화해 내 작품 전체를 잘 이해하며 잘 풀어나간 것 같다. 그러나 음악의 이미지가 강렬하여 춤이 음악에 많이 뒤쳐진 듯 착각하게 하여 음악과 춤의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론 바위처럼 멈춰 있기도 하는 안무들을 통해 무용수 개개인의 기량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주먹을 쥐어서 돌이 굴러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깨어지고 다시 뭉쳐지고 바위가 되기도 하는 장면들이 한국적인 동작들과 전통이면서도 영화음악 같은 음악과 잘 어우러졌다."



"인간의 삶을 돌의 퇴적, 침식, 풍화, 운반 작용에 빗대 표현한다는 컨셉이 독특했다. 흔히 돌에서 연상되는 단단한 이미지 대신 물 흐르듯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인 점이 신선했고 군무도 조화로웠다. 현미경으로 광물의 입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이 작품은 무용 내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대중성면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인간과 어떻게 만나는지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제와 예술성이 아무리 높아도 창작산실과 같은 기획에서는 대중성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관중들에게 어떤 얘기를 던지고 싶은 작품인지 바로 인식되지 않아 아쉬웠다."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주기 위한 설명적이고 직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반관객의 입장에서 극을 해석해 나가는 부분은 힘들지 모르지만 극의 전체적인 구성과 음악, 조명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느낌의 동작과 무용수들의 에너지는 무용을 조금이라도 접했던 관객이라면 분명 그 명확성이나 직선적이지 않은 상황을 즐겼을 듯하다. 특히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현대무용적인 틀이나 한국무용적인 틀이 아닌 흙먼 스탕스만의 호흡으로 제작진과 무용수가 함께 만들어간 듯하다."



울릴 굉轟
임용주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제(制)와 바디 그리고 더늠에 대한 고찰」
지기학

新 심방곡
신노이



전통예술

新 심방곡

신노이



●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 1월 30일(토)
●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 토 오후 7시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러닝타임 | 70분 예정
● 티켓 | 3만원
● 작곡 | 신노이 공동작곡
● 연출 | 신노이 공동연출
● 설치미술 | 최종운
● 영상 | 유탁규
● 출연진 | 이원술(베이스) 김보라(보컬)
하임(일렉트로닉 사운드)
● 제작 | 계명국
● 기획 | 박정연
● 음향 | 최윤녕(베어사운드)
● 조명 | 염신열(다홍조명)

전통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음악 유영(游泳)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악들은 역사성을 지니며, 그 안에 뿌리와 태생을 갖고 있다. 그 음악들의 역사성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지점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심방곡'이다. 심방곡이 한국전통음악의 여러 장르에 분포되어 있듯이 신노이의 <新 심방곡>은 심방곡이라는 하나의 큰 뿌리를 통해 독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신노이

신노이(SINNOI)는 국내 재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 이원술, 경기민요와 정가를 두루 섭렵한 김보라, 일렉트로닉 사운드 아티스트 하임이 함께 하는 트리오 밴드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소리와 재즈의 더블베이스 그리고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만나 각 음악이 지닌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주를 선보이며, 한국 컨템포러리 뮤직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신노이라는 이름은 시나위를 다르게 일컫는 말로, 시나위는 본래 가장 오래된 전통음악인 무악으로부터 전래되어, 각 악기가 가진 이음(異音)적인 특성을 조화롭게 연주하는 합주곡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음악들 즉, 전통음악의 소리와 재즈의 더블베이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만나 원래의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주를 이루어내는 이들의 프로젝트를 표현한다.



인터뷰 | 김보라

작품 창작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의 전통음악은 각각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방곡'입니다. 그것이 마치 신노이(저희 밴드를 말해요.)와 닮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이유를 들어 작품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했어요. 그것이 이번 <新 심방곡>입니다.

심방곡이란? 심방곡의 특징과 매력은 무엇입니까?

'심방곡(心方曲)'이라는 명칭은 현행가곡의 전신인 중대엽과 관련이 있고, 멀리 신라시대의 사뇌·사내와 연결되고, 또한 굿 음악과 시나위와도 관련이 있어요.

즉, 한국전통음악의 장르를 하나로 아우르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심방곡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심방곡'은 그 자체로써 신노이가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과 잘 맞아떨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하.

작품 제목에 新을 붙였는데, 신노이가 생각하는 21세기 전통음악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한국전통음악(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의 창작이라는 작업은 즐겁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앞서면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즐거움이 앞선다면 용기와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1세기 전통음악의 모습은 다의적이고 다양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대 연출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설치미술의 최종운 작가, 영상 디자인의 유탁규 작가입니다. 이분들과의 협업 또한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설치미술 그리고 영상디자인 이러한 조합은 심방곡의 종합예술 형태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관객 여러분과 함께 즐기면서 <新 심방곡>을 연주하고 싶네요.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국전통음악의 창작 방향의 다양성과 그 창작의 다의성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의적인것과 다양성을 신노이의 구성인 한국 전통 성악 — 재즈 —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어떻게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사운드로 표현했는지를 보시는게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신노이가 심방곡이며, 심방곡이 신노이라는 것을요.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음악이 주가 되며 거기에 작품의 흐름에 맥락적 이해를 돕는 협업작가들의 미니멀함이 돋보였다. 아티스트 개개인들이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한 이번 작품은 앞으로 신노이 멤버 개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단체의 향후 활동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여긴다. 향후 해외 공연이 활성화될 시기에 단체의 역량과 기획력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신노이의 新심방곡>은 형태를 가늠할 수 없는 심방곡에 자신들만의 상상을 더 하고 그 결과물로 원시적 원형에 닿으려는 낯선 감각의 음악들을 선보인다. 그 낯섦은 신비로운 소리와 분위기로 관객을 매료시키는데, 무대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미술과 영상은 이런 낯섦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노이 그룹의 역량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를 동시에 보여준 공연이었다고 생각된다. 아티스트의 역량은 의심의 여지없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연출과 컨셉의 일관된 반영 그리고 음악 레퍼토리와 창작과정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많은 방향을 의논하고 모색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김보라의 보컬, 전자음악, 재즈의 만남이 주는 낯선 감각이 <신노이의 新심방곡>을 이루는 음악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것은 큰 매력이다."

"8곡이 발표된 이번 무대에서 가장 돋보인 곡을 꼽는다면 '심방곡'과 '이상'이다. 노래하기 전 김보라의 해설이 가장 좋았고, 작품의 구성과 국악에서 원용 · 인용한 에너지도 이 곡이 가장 돋보였다. 묘하게도 신노이는 멤버들이 각자의 장기를 드러내기보다 김보라의 소리로 스며들 때에 그 습합력과 조립의 감각에 놀라게 된다. 특정한 주제나 가사를 말하지 않아도 많은 메시지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직시하게 하는 곡들이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단체의 수준보다 월씬 높은 예술적 수준이 작품 속에 녹아 있었다. 많은 준비를 거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 의도를 전달하고자 여러 기술 장치를 도입,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번 작품의 여러 곡을 통해 느낀 점은 예술가들이 서로의 예술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음악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가급적 각자의 패턴을 적용시키지 않고 새롭게 형식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만큼 창의적인 부분이 신선하였고 더불어 합이 잘 맞는 공연이라 느껴졌다."

"신노이의 음악적 개성을 더하는 공연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창작된 음악들 역시 신노이의 기존 곡들을 이어 신노이의 음악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 음악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연으로서의 평가는 좀 다르다. 본 공연이 전통예술의 원형에 기대어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시도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여느 다른 공연에 비하여 색다른 구성과 감각을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제(制)와 바디 그리고 더늠에 대한 고찰」

지기학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 2월 7일(일)
● 공연시간 | 수~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 일 오후 7시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러닝타임 | 100분 내외 예정
● 티켓 | 3만원

● 원작 | 황선미
● 창본 작창 연출 | 지기학
● 출연진 | 2월 3일(수) 소리꾼 지기학 _ 고수 김대일
2월 4일(목) 소리꾼 최보라 _ 고수 박태순
2월 5일(금) 소리꾼 정승준 _ 고수 이민형
2월 6일(토) 소리꾼 김소진 _ 고수 김홍식
2월 7일(일) 지기학 _ 김대일 김소진 _ 김홍식
최보라 _ 박태순 정승준 _ 이민형

제(制)와 바디 그리고 더늠에 대한 고찰, 새판소리<마당을 나온 암탉>

국내 창작동화로는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전 세계 29개국에서 번역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지기학의 창본, 작창의 '새판소리'로 탄생된다. 양계장 암탉 잎싹이 세상 밖으로 나와 겪게되는 에피소드와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판소리의 형식을 기반으로 동시대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매 회차 다른 소리꾼과 고수가 펼치는 무대는 지기학 제(制)의 창작 판소리에 각자의 바디와 더늠을 만들어내는 도전적인 실험이며, 관객은 청각의 집중을 통해 소리꾼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는 음화적(音畫的)경험을 할 수 있다.



지기학

지기학은 소리꾼이자 판소리 작가이고 연출가이다. 판소리 적벽가의 이수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한농선 명창 문하에 입문하여 <흥보가> <심청가> 전 바탕과 <춘향가> 일부를, 스승 작고 후에는 송순섭 명창에게 <적벽가>, <수궁가> 전 바탕을 사사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입단 후 판소리와 창극 무대 경험을 쌓았고, 연출과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판소리(가)와 창극(가)이 공존해야함을 깨달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란츠카프카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각색·창본·작창하여 2018년 새판소리<빨간피터이야기>를 완성, 직접 소리광대로 출연하였다. 이외에도 창극 <판에 박은 소리 빅터(Victor) 춘향>, <춘향실록-춘향은 죽었다>와 국립국악원의 작은 창극시리즈 <토끼타령>, <심청아>, <화용도 타령-타고 남은 적벽>, <꿈인 듯 취한 듯> 등을 연출하였으며, 판소리연구가 신재효의 삶은 다룬 작품 <동리-오동은 봉황을 기다리고>로 2014년 제1회 창작국악극대상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판소리퍼포먼스그룹 미친광대(美親廣大)를 창단하여, <싸아악>, <이(異)판 사(思)판 심청이야기>, <이(異)판 사(思)판 춘향이야기-사(思)소년사(少年思)>, <김대일발라드 판소리_별(鼈)소릴 다 하네> 등의 작품으로 전통의 동시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뷰 | 지기학 (연출/창본/작창/소리꾼)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 연출을 계속하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판소리 다섯마당을 바탕으로 한 창극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 많은 창작 창극 작품에서 눈대목(아리아)이 살아남아 불리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럼 새로운 판소리와 창극이 동시에 존재하면 그런 소모적인 문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할 당시 창극의 정체성 특히 성악곡에 대한, 논란도 한몫을 했습니다. 새로운 판소리(A)의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판소리적인 음악성을 잘 갖춘 창극(A)이 만들어질 수 있고 대규모 제작 과정이 필요한 창극과 함께 작은 규모로도 공연될 수 있는 판소리로 두 작품이 공생 공존하며 발전해야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창극 "춘향전"으로 변화했듯이 판소리(A)가 창극(A)로 변화하는 과정을 실험해 보긴 위한 전제 작업이기도 합니다.

2008년 창극<마당을 나온 암탉>에 이어 2020년에는 새판소리<마당을 나온 암탉>의 창본과 작창, 연출을 맡아 진행했는데, 이 두 작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008년 제작된 창극에서 저는 각색과 연출 작업을 했습니다. 성악곡을 한승석의 작창(作唱)과 김백찬 작곡가의 곡을 혼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판소리 음악성에 집중한 창극은 아니었습니다. 이즈음 많은 창극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창극과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 내는 국악 음악극의 변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작품은 근간인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것이었고 이번 새판소리<마당을 나온 암탉>은 판소리 연행을 위한 창본(唱本)으로 창작한 것입니다.
희곡과 서사시의 차이입니다. 판소리는 서사시를 연행하기 위한 장르이고 창극은 판소리 음악구조, 특히 성악곡을 바탕으로 연극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니 동모이형(同母異兄)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 흐르는 주제와 정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 삶을 관통하는 무엇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성입니다.

전작인 새판소리<빨간피터이야기>에 이어 꾸준히 새판소리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이야기한 판소리(가)와 창극(가)의 공생 공존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에 발표했던 새판소리<빨간피터이야기>를 바탕으로 창극<빨간피터이야기>와 이번에 발표하는 새판소리<마당을 나온 암탉>을 바탕으로 만드는 창극<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새판소리<마당을 나온 암탉>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대 연출이 있나요? 또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시대와 역행일 수 있지만, 무대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할 것입니다. 음향 기기도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리꾼이 내는 온몸으로 내는 진동을 관객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음향 기기가 없는 공연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변별을 하자면 판소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예술입니다. 들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쫑긋합니다. 어쩌면 관객이 들리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소리꾼들은 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작품 속 주인공인 암탉 '잎싹'이 세상을 겪어가는 이야기이지만, 잎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觀), 꼼짝할 수 없는 철창 속에서 주는 사료를 먹으며 알을 반복적으로 낳던 잎싹은 비슷하게 열린 양계장 문틈 사이로 우연히 마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소리꾼과 고수라는 전통적 형식을 따르는 판소리 창작 경향이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이 작품은 한쪽으로 치우친 창작 경향의 쏠림에서 균형을 잡아주었다. 동화를 소재로 했지만, 동화의 1차 독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공연 형식(판소리)의 한계가 있다. 대신 판소리 특유의 '말맛'과 '구연성'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

"서로 다른 소리꾼을 통해 서로 다른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창작 판소리에 새로운 창작, 수용 과정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소위 눈대목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단출한 무대지만 다 갖춘, 전통 판소리의 무대 구성을 이어가는 것 역시 향후 레퍼토리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인다. 존재에 관한 고민, 그 소멸과 영원에 관한 주제 역시 공연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작품이 '보여주려는 것'보다, 판소리 감상의 '잃어버린 관극 자세'를 복원시키는 데에 큰 의미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소극장을 택했고, 소리꾼과 관객의 거리를 좁혔고, 소리꾼은 관객에게 말을 걸고, 관객은 추임새로 화답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색채와 형식의 농도가 짙은 창작물도 현대인들의 감성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소리꾼과 고수가 펼치는 예술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이 가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는 판소리 입문작으로도 매우 적합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전통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작품이다. 또한 현대 아동 문학이 판소리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독창성은 입증되었으며, 매회 다양한 소리꾼과 고수가 등장하는 구성은 공연을 선택하는 관객들의 선택지를 넓혀주어 호기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재관람을 유도하는 면에 있어서도 탁월했다고 생각한다."

"창작하고, '바디'의 과정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개성이 발견되고, 더늠으로 또 다른 창작이 덧대어지는 과정은 비단 전통 판소리의 시간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가치, 다양한 형식으로 펼치는 것이며 이는 관객에게도 다양한 감각을 선사하는 재미와 기쁨을 안겨준다. 이는 전통을 재창작하는 관점, 판소리를 무대화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평가 지점인 것 같다."



전통예술

울릴 굉轟

임용주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 2월 28일(일)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러닝타임 | 60분 예정
티켓 | 3만원
음악감독 | 임용주
협력음악감독 | 노디

출연진 | 임용주 오병욱 이재하
기술 | 이도엽(걸작)
무대 | 김인식(걸작)
음향 | 김규식(에어시스템)
조명 | 김익현(이프디자인랩)
무대디자인 | 신승렬
프로듀서 | 김혜연

현재와 내일을 살아가는 전통의 소리

'편경'이라는 악기의 이미지와 소리를 매치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전통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지만 뒤에 숨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편경에 주목한다. 전통음악의 표준으로 상징되는 편경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과 재해석을 통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통의 소리는 과거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현재에도 존재하며 우리의 내일에도 함께할 것이다. 다만 내일의 관객이 전통의 소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는 전통음악을 하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임용주

임용주는 농악과 사물놀이를 공부하였고 전통 장단의 구조와 균형미를 토대로 사운드 메이킹 및 음악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전통음악 기반의 창작음악집단인 월드뮤직그룹공명의 멤버로서 다양한 소재로부터 새로운 악기제작을 통한 창작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듈라서울의 오거나이저로서 전자음악 공연 시리즈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음악과 전통악기의 실험적인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자음악, 실험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뷰 | 임용주(울릴 굉轟 음악감독)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편경'이라는 악기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편경의 소재는 '돌'입니다. '돌'이라는 소재는 시간과 환경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편경은 전통음악 음률(음정)의 기준이 되는 악기가 되었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음정의 조율을 편경에만 의지하지 않을뿐더러 편경이 전통음악 전반에 쓰이지 않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편경의 소재적, 상징적 특성이 전통문화의 변치 않는 가치와 현실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했고 편경의 전통적인 음색을 가장 현대적인 어법의 전자음악을 이용해 새로운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작품 속에서 편경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편경 고유의 매력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전자음악을 위한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아날로그 음향장비, 모듈러신시사이저 등)를 이용해 샘플링, 합성, 변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적 확장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경 이외에도 대금, 거문고, 양금, 타악기 등 다양한 전통악기들을 이용해 풍성한 음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간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임용주 음악감독이 생각하는 전통음악의 미래는?

전통음악의 미래…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통음악이 동시대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전통음악일까? 이런 말장난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곤 합니다. 저는 전통음악을 과거의 음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현재의 음악이죠. 과거의 음악들이 차곡차곡 쌓여 전통음악이 되었듯 현재의 음악들이 쌓여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음악의 계승과 보존이 중요한 만큼 개개인에 의한 동시대적이며 다양한 해석과 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음악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통음악을 위한 활발하고 자유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관객들에게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소리가 곧 음악이다.' 전통음악의 가장 큰 가치는 오랜 세월 전해진 그 소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전통의 소리, 그리고 전통음악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창작진과 실연자의 역량이 매우 뛰어났고 충분한 연습과정을 거친 듯하다. 전자기술이 많이 동원된 공연은 기기의 결함이나 실수로 인해 연주가 중단되거나 미흡한 점이 보이곤 한다. 본 공연은 연주는 물론 함께 하는 음향 기술자, 무대 연출자 등의 합이 돋보였다."

"잘 사용되지 않는 악기의 등장, 낯설게 느껴질 법한 국악기, 익숙하지 않은 전자음향 등이 사용되었지만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전통예술과 공연예술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매력을 갖춘 작품이다. 무용, 연극, 다원예술 등 타 장르와의 협업 가능성이 큰 작품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잘 유지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세련된 음악적 완성도는 향후 관객들의 관심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레퍼토리로 수정-발전되면 큰 무대에서의 영상과 매칭된 공연으로 가능성도 기대된다."

"편경이 무대에 오른 것만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전통음악에 대한 색다른 감각을 선사하며 음악과 사운드아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장르의 구분없이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 가능성,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울릴 굉轟>은 구성이 돋보인 작품이다. 편경 소리를 들려주고, 다른 악기들과 협연하고 궁극에는 샘플링 된 편경 소리가 무대 위의 실제 편경과 만난다. 사운드에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연출을 꾀했지만 <울릴 굉轟>은 하나의 퍼포먼스로서도 의미가 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이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각이 발견되는데, 이로써 편경의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

"<울릴 굉轟>은 음악 작품이기도 하지만, 소리의 울림을 활용한 '공간 작품'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간에 대한 연출력이 돋보였다."

"생소한 편경이라는 악기를 친숙한 전통악기와 디지털 사운드에 접목시켜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완성시킨 것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는 대부분의 젊은층 관객이 자연스레 몸으로 리듬을 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전통 악기를 이용해 젊은 세대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레이저 포인트, 조명 등을 이용한 연출은 작품의 매력을 살린 최적의 연출이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은 큰 무대장치 없이도 공간을 변화시키며 분위기까지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었다."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히드클리프
(주)엠비제트컴퍼니

인사이드 윌리엄
(주)연극열전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주)랑

창작뮤지컬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2021년 1월 3일(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휴일 공연 없음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 100분
티켓 | R석 7만 7천원 / S석 5만 5천원

프로듀서 | 박서연
연출 | 추정화
작가 | 김홍기
각색 | 추정화 고재오
작곡 | 허수현
안무 | 김병진
출연진 | 김종구 홍승안 윤석원 류지한 김도현 신은총 이진우 이지연

부조리와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의 쉼표!

에덴시 최고 권력가 클라인 뷰포트의 아들 타일러. 그는 우연히 거리의 벽에서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나비스의 그림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던 어느 날, 뷰포트 가의 횡포를 고발하는 나비스의 그림이 에덴시에 그려지고, 타일러는 단번에 그가 나비스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나비스를 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라피티로 반항심을 표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한편 나비스의 화살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클라인은 그라피티 예술가와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라피티 예술가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작품을 멋대로 팔아 치운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비스는 클라인에게 마지막 한 수를 거는데…



우리별이야기

공연제작사 '우리별이야기'는 관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공연예술에 기여하겠습니다.



인터뷰 | 추정화 연출, 김홍기 작가, 허수현 작곡가

영국의 저명한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의 이야기가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뱅크시의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나요?

김홍기 작가

역시나 다들 아시는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의 소동극이 (*15억에 낙찰된 작품을 스스로 파괴한 사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전에는 존재도 몰랐고요. 자기 신분을 숨기는 예술가라는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던 건 아니에요.
전 사실 뱅크시의 정체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마 뱅크시는, 정말 뱅크시 같은 사람일거예요. 알고 보니 영국의 유명 배우 누구였다, 재벌 3세 누구였다,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15억이란 말이지요. 자기 돈으로 찢어발긴 돈이 15억이란 거에요. 물론 세상엔 그보다 더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뱅크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5억을 불태울 정도의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순전히 퍼포먼스와 메시지를 위해서
그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인물의 진정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 인간은 '진짜'예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쿨병 걸린 인간이 아니라, 진짜 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초기에 구상한 이유는 단순해요. 우린 못 그러잖아요. 늘 돈에 쫓겨 사는 우리들은,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한 번쯤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는 못 살 테니까요.

신진 스토리 작가 육성 지원사업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에서 개발된 작품인데 연출로 처음 만난 이 작품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후 작품이 수정, 발전되었다면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궁금합니다.

추정화 연출

신선했습니다. 전 사실, 이 작품을 접하기 전까지 뱅크시에 대해서도, 그라피티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의 연출을 맡고 공부를 하다 보니 파면 팔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한 히어로로 비춰지기 보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계속 물음을 던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위트 있는 비틀림을 잘 시도해보고 싶고요.

현재 '실존하는' 예술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고, 무대 위 그라피티아트도 등장하는데 이를 위해 고민했던 지점과 연출 포인트를 소개해주신다면?

추정화 연출

아! 실존하는 예술가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우리의 '나비스'는 또 다른 그라피티 예술가이므로 뱅크시보다는 나비스 표현에 더 주력할 겁니다. 권력에 맞대응할 힘이 전혀 없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한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라피티는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는 무엇입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수현 작곡가

Song2. '클라인'입니다!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썼던 곡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음악적 흐름을 결정해준 중요한 곡이라 애정이 갑니다. 영국의 소더비 경매장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장면에 사용되는 곡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클라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음악인데요, 강렬한 록으로 작곡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음악적인 흐름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완성되었던 음악에 클라인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편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록 음악을 사용하지만, 스윙과 클래식한 음악도 도입하여 풍요로운 음악으로 관객분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시나요?

추정화 연출

매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못 깨죠. 맞아요. 권력 앞에 무슨 당해낼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얘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어쩜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방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동시대를 담을 수 있는 캐릭터와 주제의식을 참신한 소재에 담은 작품이라 충분히 레퍼토리화 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현재 공연대본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 보인다."

"연기와 춤, 노래 외에 또다른 시각적 메시지와 퍼포먼스가 가능한 그라피티라는 소재를 무대로 가져온 것은 참신하고, 그라피티를 통해 저항의 담론으로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려는 시도 역시 의미 있다."

"그라피티 문화를 가진 다른 문화권, 다른 사회의 보편적 갈등이 아니라 가장 동시대적이고 한국적인 사회적 갈등, 세대적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욕심으로 다듬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파괴력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 "

"현재 대본에서 캐릭터의 설정과 구성이 무난한 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무난한 캐릭터 구조를 가졌기에 보편적인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지만, 무난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극이 다루는 저항이나 갈등의 생생함이 없다. 드라마 구조는 살리면서도 인물들이 겪는 구체적 갈등의 성격과 수위에 핍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 과정에서 현재 대본의 또 다른 문제인 산만하고 비효율적인 장면구성 역시 함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라피티는 뮤지컬의 소재로 흥미로운 지점이 많다. 반예술을 지향하면서도 대중적이고, 결과물로서의 작품만큼이나 과정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중요할 뿐 더러,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이자 실천이 되는 장르가 바로 그라피티이다. 소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와 시각성이 제시된다면 이 작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

"예술가 소재의 뮤지컬에서 보여지듯 자유로운 영혼의 캐릭터와 흔들리는 영혼의 캐릭터의 조합이 사회적 억압을 대변하는 캐릭터와 만난다는 설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특별한 소재와 만난 드라마로는 풀어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물론 이 지점에서 이 공연이 현재의 '대학로 관객'을 만나는 것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는 한다. 상업화의 단계에서 창작진과 제작진의 고민이 느껴진다."

"좋은 소재와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아쉬움 또한 크지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강한다면 재지원도 고려 가능하다 생각한다."



창작뮤지컬

히드클리프

(주)엠비제트컴퍼니



●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 2월 7일(일)
● 공연시간 | 화~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러닝타임 | 15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 티켓 | R석 7만 7천원 / S석 5만 5천원

● 극본·연출 | 고선웅
● 작곡 | 정민선 이진구
● 편곡·음악감독 | 이진구
● 안무 | 신선호
● 출연진 | 미정

사랑, 휘몰아치다!

소설 '폭풍의 언덕' 원작!
그 처절하고 광기 어린 사랑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워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폭풍의 언덕)'의 주인 언쇼는 리버풀에서 한 고아를 데려온다. 그 아이에게 히드클리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 힌들리, 딸 캐시와 함께 키운다. 힌들리는 히드클리프에게 무자비한 악의를 보이지만, 캐시와 히드클리프는 하나로 묶여 있는 듯 교감한다.
그러나 캐시는 힌들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린튼 가문 에드거의 구혼을 받아들인다. 캐시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히드클리프는 종적을 감춘다.
몇 년 후, 다시 돌아온 히드클리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의 등장과 함께 '워더링 하이츠'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주)엠비제트컴퍼니

㈜엠비제트컴퍼니는 공연 기획 및 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를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가를 위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 고선웅 연출, 이진구 작곡가

작품 창작의 배경과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선웅 연출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히드클리프는 캐시에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만 통하는 진실이 숨어있습니다. 둘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요. 사랑이 가벼워진 시대에 지독한 사랑은 멈춰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마주하고 있을 테니까요.

에밀리 브론테의 원작 <폭풍의 언덕>을 뮤지컬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고선웅 연출
충돌적 서사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격렬하면서도 극적인 뮤지컬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만한 장면과 대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선웅 연출
들판에서 마주 봐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레퀴엠이 흐르는데 박진감이 넘친다.
캐시가 벽을 보며 노래하고 죽어 가면서 노래한다.
버림받은 여자, 이사벨라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에드거가 남의 여자가 된 아내를 끌어안고 노래한다.
히드클리프가 눈보라 속에서 노래한다.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는 무엇입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진구 작곡가
'나는 너야'
2막 후반부, 극의 클라이맥스에서 히드클리프와 캐시가 부르는 넘버입니다. 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는 부분은 이곳뿐입니다. '나는 너야 너는 나야'라는 가사의 힘이 가중될 수 있도록 오히려 격하지 않고 정적으로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한 선율이 올라갈 때, 다른 선율은 내려갑니다. 음악적으로도 '이율배반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극히 클래시컬하면서 현 파트의 고유한 아름다운 울림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마치 피아노 콘체르토 2악장처럼.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선웅 연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이좋게 사랑하자.
합의가 깨진다면 미련 없이 손을 놓고 떠나주자.
원망이 돋아날 때는 딴 일을 하며 잊자.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뮤지컬에서는 드문 '캐릭터 중심'의 서사가 될 수 있었지만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치중한 점이 아쉽다. 원작이 지닌 결이 다른 사랑이야기를 살려내지 못할 때 이 작품은 평범한 복수극에 지나지 않는다. 실내악의 고전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이것이 뮤지컬 음악으로서 어떤 새로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작품을 통해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지점이다. 무대를 비롯해 연출의 언어가 연극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최근 뮤지컬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겠지만 대중성의 측면에서는 광기, 집착, 복수 등이 부담스러웠다고 생각된다."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은 분량으로 볼 때 방대하지만 낭만주의에 바탕을 둔 사랑이야기라는 점에서 뮤지컬 장르에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고전'으로서의 텍스트와 '클래식'한 음악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존의 뮤지컬과는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시도하고자 한 기획의도는 긍정적이다. 대극장 공간을 의식한 앙상블의 활용이나 회전무대의 사용 등 공간에 대한 연출의 고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면모가 극 전반을 아울렀다면 좋았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예술적인, 무게감 있는 작품을 지향하는 창작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장대한 서사를 극적으로 재구성하는데 더욱 치밀한 계산이 필요해 보이고, 음악과 가사는 입체적이고 복잡한 원작 캐릭터와 사건을 담지 못한 채 단조롭게 느껴진다."

"음향 효과와 무대 영상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냈으나, 전체적으로는 무대가 허전하다고 느껴졌다. 고전을 무대에 되살려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에는 이 작품이 지금의 시대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힘들었다."

"소설처럼 세세한 감정묘사를 할 수 없는 뮤지컬에서는 음악이 인물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작품에서는 음악이 시종 곱고 아름다우려고만 해서 인물의 격앙된 감정과 괴리를 일으켰다. 두 주인공의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격정을 대변하는 원작의 공간적 배경이 잘 살지 않은 점도 아쉽다."

"감정의 밀도와 서정의 설득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한다면 굳이 대극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공간의 집중력을 키우면서 감정의 에너지를 채운다면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실내악이라는 편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조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작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주)랑



일시 | 2021년 2월 18일(목) ~ 3월 21일(일)
공연시간 | 화~금 8시 / 토 3시 7시 / 일, 공휴일 2시 6시
장소 | 플러스씨어터 (現 컬쳐스페이스 엔유)
러닝타임 | 120분
티켓 | R석 66,000원/ S석 44,000원

작가 | 표상아
작곡가 | 김보영
연출 | 김동연
출연진 | 정욱진 최민우 송나영 홍나현 한보라 이아름솔 원종환 유성재 김지훈 김남호 황두현

꿈을 잃은 사람과 꿈을 이루려는 귀신들 쿠로이 저택에서 만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꿈이 집어 삼켜진 일제 식민지 시대, 여기 희망을 잃어버린 해웅이 있다. 해웅은 우연히 장미항에 있는 쿠로이 저택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불의 꿈으로 가득한 귀신들을 만나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유일한 인간인 해웅을 놓칠 수 없는 쿠로이 지박령 옥희와 귀신들. 희망하는 일도 누군가의 희망을 지켜보는 것도 지친 해웅. 그들은 이제 이 쿠로이 저택을 떠나야 하는 같은 목표가 생겼다. 누가 이 쿠로이 저택을 먼저 떠날 수 있을까? 그들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것일까?



(주)랑

2010년 설립한 '랑'은 "더욱더 새롭고 신선한 컨텐츠로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년간 공연계에서 기획 및 제작 경험을 쌓아온 젊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공연 전문 홍보, 마케팅을 위해 15년 이상의 공연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컨텐츠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터의 길도 함께 가려 합니다. '랑'은 진취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 창의력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공연시장에서 좋은 작품을 통해 가슴 깊은 감동과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행복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뷰 | 김동연 연출, 표상아 작가, 김보영 작곡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표상아 작가
저는 평소에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소재나 혹은 익숙한 캐릭터들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도 그런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맺힌 귀신이라는 다소 으스스한 캐릭터를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남은 귀신으로 상상해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를 다소 엉뚱하고 재밌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시작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희망이 없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희망만 가득한 귀신을 등장시켜서 지금의 이야기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충무아트센터의 스토리작가 데뷔 프로그램 '뮤지컬하우스 블랙앤블루'를 통해 개발된 작품인데요. 연출로 처음 만난 이 작품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후 작품이 수정, 발전되었다면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연출
소재가 특이 했고 상황설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서사를 발전시키고 이 작품만의 일관성 있는 매력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이 가진 매력과 관객들을 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해주세요.

김동연 연출
한국적 소재에 담은 소동극 형식의 뮤지컬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귀신들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무대에 표현해야 하는데 배우들의 역량과 무대 영상의 효과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현대적이고 코믹한 연출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는 무엇입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보영 작곡가
작품의 두 번째 넘버인 "여긴 뭔가 있어"를 추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인 주인공 옥희와 옥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캐릭터들 간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표현된 넘버로, 이 노래를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컨셉과 특징,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에 남길 바라나요?

김동연 연출
많은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그렇듯 이 뮤지컬 속에서도 자신들 만의 소망이 있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한바탕 소동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펼치는 그 소동이 유쾌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쾌함 속에 있는 삶의 생동감에 감동을 관객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와 웃음 포인트를 잘 녹여내었으며, 오브제 및 특수효과의 적절한 사용 등 근래에 돋보이는 수작이다."

"극의 구조 및 장면과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연극적, 유희적으로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설정이라는 점이 훌륭하다. 극과 캐릭터를 벗어난 배우 개인의 쇼와 애드립이 아니라 배우가 자신의 재능을 극과 캐릭터 안에서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방식의 대본이라 이후의 공연이 기대된다."

"1인 다역, 방백 등 공연예술의 장점 뿐 아니라 작품 내에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이며, 이미 완성도가 높아 향후 대학로 중심으로 장기 레퍼토리로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스타 배우가 극을 이끌고 앙상블 배우들이 장면을 채우는 식이 아니라 모든 배우가 모든 장면에서 자신의 캐릭터로 무대를 채울 수 있는 방식의 작품이다. 제작진과 배우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작품에 드러나기 좋은 구조라 레퍼토리화가 기대된다."

"소극장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 배우의 모습들이 잘 보이며, 장면 활용과 분배 면에서도 안정되었다. 일반 관객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코미디인 점도 이 작품의 장점이다. 그러나 예술적 성취를 논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시각적인 시도들(홀로그램)이 의미 있지만, 퀄리티면에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겠다. 향후 작품이 레파토리로 지속된다면 창작산실의 방향성과도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의미를 담은 역사적 사건을 무대로 옮겨 극예술로 다룰 때, 대체로 작품들이 그 역사적 사실의 무게감에 짓눌려 극적 흥미를 잃고 엄숙주의로 흐르거나, 민족주의, 애국주의 감성에 기대 웅장한 캠페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 그런 면에서 <쿠로이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가 보여준 접근방식은 반갑다. 미시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되,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 지녀야 할 윤리와 미학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연극적인 상상력으로 무대를 풍성히 채우면서 동시대 관객이 외면하는 '그 때 그 시절의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불러냈다. 다만 초연이라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 집에 갇혀 떠나지 못하는 지박령과 다양한 귀신들의 유쾌한 이야기로 우리가 잊어가는 어떤 한 시대, 이름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불러내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작품과 극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공간 활용이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된다. 2층 구조의 무대디자인을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이며, 연출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무대에 과학기술이 삽입되었을 때 일부 과하게 표현되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본 작품에서는 홀로그램으로 보이는 특수영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혼령)을 표현하기 위해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풍금은 시대적 공감도 불러일으키지만 이 작품의 정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오브제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보인다."

"흔한 로맨스 대신 등장인물 간의 따듯한 연대에 포커스를 맞춰 남녀노소,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창작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주)연극열전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 4월 25일(일)
공연시간 | 화,수,금 8시/ 목 4시, 8시/ 토,일 3시 6시30분
장소 | 아트원씨어터 1관
러닝타임 | 100분
티켓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A석 44,000원

작가 | 김한솔
작곡 | 김치영
드라마터그 | 김동연
연출 | 박지혜
출연진 | 최호중 김아영 주민진 김바다 임준혁 유리아 최석진 한재아

엉켜진 플롯 속 햄릿, 줄리엣, 로미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각자의 파라다이스를 찾을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 모르게 페이지를 빠져나온 햄릿과 줄리엣!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나답게' 살려고 하는 두 사람과 명작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을 막으려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주인공으로 남고 싶은 로미오! 엉켜진 플롯 속의 햄릿과 줄리엣, 로미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주)연극열전

㈜연극열전은 2007년도 설립 이후, 총 여덟 번의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축적된 제작 노하우와 참신한 기획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레퍼토리 발굴',' 국내 창작 작품 지원',' 검증받은 해외 작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객들에게는 보고 싶은 공연을, 배우와 스태프에게는 참여하고 싶은 공연을 올림으로써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가 공연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인터뷰 | 김한솔 작가, 김치영 작곡가

작품의 창작 배경,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김한솔 작가
셰익스피어가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동시에 집필하다가 그 두 원고가 바람에 섞여 햄릿과 줄리엣이 만나면 어떨까? 라는 엉뚱한 상상에서 '인사이드 윌리엄'은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이 아닌 작법서 룰에 따라 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결국 해피엔딩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래부터 쓰고 싶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쓴 게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상상력까지 더 해져 우리는 모두 가장 자신다울 때 빛난다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동시대성을 띠면서도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캐릭터 연출에서 신경을 썼던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한솔 작가
햄릿과 줄리엣 모두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어렸을 적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햄릿은 칼이 아닌 펜을 잡고, 줄리엣은 손에 낀 고운 장갑을 벗어 던지고 칼을 쥐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삶이 아닌, 자유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 속 뮤지컬 넘버는 무엇입니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치영 작곡가
[달라진 장르 리프라이즈]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진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캐릭터들과 그 안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4중창으로 표현한 짧은 곡입니다. 작업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넘버였고, 각 캐릭터들을 잘 드러내 주는 4곡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극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주는 넘버라 생각하기에 추천합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김한솔 작가
평범하다 해도, 반짝거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이기에 소중한 삶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재밌는 힐링 극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셰익스피어의 가장 대중적인 두 작품을 바탕에 두고, 위대한 작가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친근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올곧게 서려는 극중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적 정서를 잘 녹여냈다고 판단된다. 롱런의 가능성 있으며, 입문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와 그 작가의 캐릭터를 유희적으로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시도 자체는 참신하고, 작품의 짜임새가 전체적으로 창작의도와 잘 맞물려 있다. 다만, 원작의 무엇을 어느만큼 비틀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는가를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대사와 운율을 잘 살리면서도 위트와 재치를 적절하게 가미했다. 배우들 모두 자기 캐릭터를 잘 소화하였으며 배역에 맞는 캐스팅이었다. 이 작품은 뛰어난 연기력을 요구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레퍼토리화를 위해서는 캐스팅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셰익스피어 원작 속 캐릭터와 <인사이드 윌리엄> 작품 속의 캐릭터 사이의 연결점이 지금보다 더 본질적이고 끈끈하게 엮여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운명이 정해진 극적 캐릭터들이 작가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설정 자체는 연극적 놀이와 무대적인 유희를 펼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을 소재로 작가와 등장인물을 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게 하는 메타적 상상력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인물로나 작품으로나 뮤지컬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소재이지만, 이렇게 작가와 작품을 섞어 놓은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익숙하면서도 흥미로운 설정인 이유이다."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작품이다.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설정이 품은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면 향후 레파토리로 성장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예술가나 예술작품을 소재로 하는 흔한 뮤지컬과는 다소 비교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 기존의 인물과 작품들에 대한 친숙도와 그 점을 이용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트위스트는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도 대중들을 만나는 것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중간중간 삽입된 웃음포인트는 유쾌하고 기발해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 의상과 무대는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하였으며 좁은 무대에서도 캐릭터에 알맞게 공간을 분배하여 무대가 좁게 느껴지지 않았다. 적극적인 무대 활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였으며, 네 명의 배우가 열의를 다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창작오페라



김대리조단조

10분 음악을 만났어

창작오페라

뱀이 심장을 먹었어

김앤리프로덕션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3월 27일(토)
- 공연시간 | 금 7시 30분 / 토 2시, 6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러닝타임 | 150분
- 티켓 | VIP석 12만원/R석 10만원/S석 7만원/A석 5만원
- 제작 | 김앤리프로덕션
- 작곡 | 정진호
- 작가 | 이난영
- 총예술감독 | 이명국
- 연출 | 윤상호
- 음악코치 | 김미양 이기연
- 안무 | 전건우 문형수
- 오케스트라 | K&L오케스트라
- 합창 | 위너오페라합창단
- 의상디자인 | 박선미
- 분장디자인 | 구유진
- 조명디자인 | 박원광
- 영상디자인 | 이수연
- 지휘 | 우나이 우레초
- 출연진 | 정꽃님 한경성 권소라 송윤진 김윤희 정의근 이규철 임홍재 한경석 이명국 허철 김지영 박수지 임준재

고전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어두운 일면을 돌아보다

꿈 많던 메두사가 권력자들에게 능욕당하고 짓밟히며 사람들에게 마녀로 불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진 부조리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권력자의 횡포와 지식인들의 비겁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앤리프로덕션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와 신인 성악가가 함께하는 김앤리프로덕션은 2016년 '김앤리콘서트'를 시작으로 삼아 다채로운 레퍼토리, 친절한 연출 등 관객 친화적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오페라의 재도약과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제작 경험을 지닌 제작팀과 훌륭한 기량의 소속 가수들, 여기에 K&L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해져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본 오페라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오페라를 제작하여 꾸준히 사랑받는 오페라의 힘을 가지고 있고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과 언어의 하모니로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음악인들로부터 많은 주목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오페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인터뷰 | 이명국 예술감독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모티브는?

기존의 권력층이나 승자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의구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와 성 접대 등의 핵심 의혹들이 수사의 진실을 가려내기보다는 유력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사건들, 특히 장자연 리스트나 N번방, 박사방 사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뱀이 심장을 먹었어'라는 제목이 인상적인데 이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나요?

소녀는 노래하는 것이 꿈인 가난한 고르고 거리의 소녀로 현시대의 권력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 상황조차 설명하거나 알릴 수 없는 힘없는 신분입니다. <뱀이 심장을 먹었어>는 꿈 많던 메두사가 권력자들에게 능욕당하고 짓밟히며 사람들에게 마녀로 불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진 부조리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권력자의 횡포와 지식인들의 비겁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작오페라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을 뒀던 포인트는?

이 오페라는 악의 상징으로 알려진 '마녀 메두사' 이야기를 비틀어, 위선적인 권력자들과 비겁한 지식인들이 어떻게 가엾은 여인을 마녀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며, 현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권력 남용과 죄 없이 희생당하는 이들에 대한 은유의 오페라입니다.

따라서 극 속 위대한 신 포세이돈과 정의의 여신 아테나, 고귀한 척하는 귀족들이 가진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권력이 가진 '악의 본능'이 어떻게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가를 보여주고, 가난한 소시민들인 고르고 사람들과 메두사가 권력자들에 의해 고통받는 현실을 대비적으로 그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겁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R을 관찰자 시선으로 표현해 관객으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숨겨진 악의 본능과 욕망을 몸짓과 상징물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권력자들의 악'이 어떻게 '메두사의 악'을 만들어내는가를 시각적이며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오페라가 이중적인 권력자들의 모습과 비겁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진실을 되새겨보고 현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장면이나, 대사, 음악이 있다면?

소녀 메두사가 처음 포세이돈을 만나서 부르는 2중창입니다. 같은 멜로디를 소녀는 앞으로의 희망을, 포세이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데, 아름다운 멜로디의 2중창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본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여 이중적인 권력자의 모습과 비겁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진실을 되새겨 보고 현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전문가 & 지정관객 평가

"보편적인 신화에서 소재를 따와서 역시 보편적이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과 연결시켰기에 이야기가 와 닿는 힘이 있었다. 희생당한 후 저주처럼 여운으로 남은 피날레에 창작 의도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와 마태수난곡을 인용한 주제가 익숙하게 다가왔고 주역인 소녀 메두사와 포세이돈 등 성악진의 활약도 돋보였다."

"음악적인 성취가 상당했다. 우나이 우레초가 지휘한 22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실제 연주를 듣는 오페라의 맛을 북돋워주었다. 위녀 합창단의 합창도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뮤지컬에만 익숙한 관객들이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극적 흐름이었다. 보완점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향후 레퍼토리로 지속 발전 가능하다고 본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도 몰입할 수 있는 오페라였다. 지루하게 정체되는 부분이 없었고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많았다. 무겁지도 희화화되지도 않는 내용의 균형을 잘 찾은 것 같다."

"서양신화를 차용하여 동시대 담론과 화두를 뜨거운 목소리로 담아내려는 시도는 엿보이나 형식적,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면이 있어 보이며, 극의 절정단계에서 극적 긴장감을 완전한 형태로 연소시키는 세밀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창작 오페라의 소재를 다양화시킨 점과 주제적으로 동시대의 감수성과 요구를 투영시키려 한 점은 평가받아야 하지만, 주제의 선명성이 작품의 완성도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초연인 점을 감안하여 작품 전반에 대한 창작진의 밀도 높은 수정을 통해 향후 레퍼토리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기 바란다."

"새로운 작품들을 보면 과욕이 앞서 정리가 잘 안 된 경우를 많이 보는데 <뱀이 심장을 먹었어>는 그러한 면에서 절제를 통해 획득한 일목요연함과 명료함이 빛난 작품이었다. 향후에 몸집을 불려 더 큰 규모의 극장에서 확대 편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뱀이 심장을 먹었어>는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보다는 익숙한 신화를 동시대적인 화두와 엮어 재해석한 점이 돋보인 작품이다. 오페라는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장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날카롭고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다채롭고 현대적인 음악 형식도 오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었다."

"서양신화를 차용하여 동시대 담론과 화두를 뜨거운 목소리로 담아내려는 시도는 엿보이나 형식적,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면이 있어 보이며, 극의 절정단계에서 극적 긴장감을 완전한 형태로 연소시키는 세밀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역대 선정작
2008 - 2020

연극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2008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2008	바다 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2009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극단 놀땅
2009	경성스타	연희단 거리패
2009	미친극	극단 백수광부
2010	매기의 추억	극단 작은신화
2010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2010	사랑이 온다	극단 전망
2011	그리고 또 하루	극단 연우무대
2011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극단 작은신화
2011	숲 속의 잠자는 옥희	극단 백수광부
2012	그 집 여자	극단 전망
2012	봄이 사라진 계절	극단 작은신화
2012	싸움꾼들	극단 청우
2013	2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고공정원	극단 산
2013	팬지	극단 이루
2013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4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맘모스 해동	공상집단 뚱딴지
2014	미국아버지	극단 이와삼
2014	색다른 이야기를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2014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달빛 안갯길	한양레퍼토리
2015	떠도는 땅	극단 두
2015	방문	극단 풍경
2015	우주의 물방울	극단 피오르
2015	토일릿 피플	극단 작은신화
2015	하나코	극단 물리
2016	소나기마차	공상집단 뚱딴지
2016	신인류의 백분토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6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창작집단 꼴
2016	좋은 이웃	극단 수
2016	쪽마루 아틀리에	아트브릿지
201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극단 피악
2016	툇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6	하늘로 간 청춘팥	플레이그룹 잼잼
2016	혈우	극단 M.Factory
2017	고래가 산다	유목민
2017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하땅세
2017	모래시계	극단 목화
2017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극단 위대한모험
2017	선을 넘는 자들	극단 놀땅
2017	암전	극단 두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극단 백수광부
2018	가미카제 아리랑	극발전소301
2018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프로덕션IDA
2018	분노 하세요!	극단 파수꾼
2018	비명자들1	고래
2018	빌미	극단 인어
2018	세기의 사나이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8	하거도	극단 작은신화
2019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극단 난희
2019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2019	체액	즉각반응
2019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 시대
2019	마트료시카	극단 수
2019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2019	대신 목자	극단 물리
2019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2020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날
2020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2020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2020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0	고역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무용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1	2040년의 하루	SEO발레단
2011	대답없는 외침	김경영
2011	비애모	김용걸댄스씨어터
2011	<발레-판소리> "발레가 발레를 추다.."	백영태
2012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2	천개의 기억	백연옥
2012	회향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2013	5번째 Birthday Party 抛球 ROCK(포구락)	프로젝트 수(手) & 안팍 Ann-Park
2013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3	스코틀랜드의꽃	이원국발레단
2013	I'm so tired	예효승
2013	VANITY(무상)	LEE발레단
2013	관(關)_처용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아포리즘	강미리할무용단
2013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조윤라발레단
2013	파랑새	문영철발레뽀에마
2013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행,간(between the lines)	리케이댄스
2014	RAGE	(사)서울발레시어터
2014	FATAL	Company J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무용단
2014	눈	댄스씨어터 창
2014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시저테일 서전트	박나훈무용단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심청	이경옥무용단
2014	안녕	김설진
2014	천	김선미무용단
2014	2015	미나유(유정옥)
2014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댄스프로젝트
2015	THE DOOR (La Danaide)	오!최진수발레단
2015	거울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길 떠나는 가족	최소빈
2015	뉴턴의 3법칙	안수영컴퍼니
2015	소무	Art Project BORA
2015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M발레단
2015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정신혜무용단
2016	공상 물리적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
2016	귀신(鬼神)고래	윤수미무용단
2016	당신의 바닥	PDPC
2016	시집가는 날	(사)서울발레시어터
2016	옛날옛적에	고블린파티
2016	음형공간(音.形空間) - Atopos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2016	인간	신현지
2016	침묵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
2017	"The Chaos" 혼돈	최상철현대무용단
2017	Baroque goes to Present	와이즈발레단
2017	Perfect death	Ground Zero Project
2017	가상 리스트, Virtual List	원댄스프로젝트그룹
2017	가족놀이	PDPC
2017	물속 골리앗	김범호
2017	美 A (미아)	휴먼 스탕스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남식&댄스투룹-다(Da)
2017	Down the rabbit hole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18	Hidden Dimension	UBIN Dance
2018	NUTCRUSHER	허성임
2018	개미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2018	댕기풀이	이경옥 무용단
2018	매스?게임!	장은정무용단
2018	변신	류장현과 친구들
2018	소극적 적극	고블린파티
2018	평행교차	안애순
2019	오월바람	오월바람
2019	호모파베르	호모 파베르
2019	군림	Soo d Art & Co
2019	新청 랩소디	라만무용단
2019	Body Rock	미나유
2019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9	Hit & Run	시나브로 가슴에
2020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20	BLACK	노네임소수
2020	플라스틱 버드	최지연 무브먼트
2020	호모 모빌리쿠스	김남식&댄스투룹-다(Da)
2020	고요한 순환	무용단Altimeets
2020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2020	두 개의 혀 -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20	돌	휴먼 스탕스

전통예술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6	거문고 스페이스	허윤정
2016	해미오와 금이에	해금연구회
2017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	사단법인 정가악회
2017	오셀로와 이아고	천하제일탈공작소
2017	완창판소리프로젝트1	이향하
2018	"생사의" - 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왓와이아트
2018	도공지몽-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악기 "훈"의 재발견	송경근
2018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송경근
2019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2019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2019	8음(八音)	음악그룹 나무
2019	오래된 미래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2020	新 심방곡	신노이
2020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기학
2020	울릴 굉轟	임용주

창작뮤지컬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오월엔 결혼할거야 (웨딩펀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도도	학전
2009	달콤한 나의 도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해븐
2009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0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파파프로덕션
2010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MJ Planet
2010	콩칠팔 새삼륙	모비딕 프로덕션
2011	Trace U(그 남자의 비밀)	㈜장인엔터테인먼트
2011	Underneath Memory (언더니스 메모리)	㈜스컹크웍스
2012	내 결혼식에 와줘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2012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미드나잇 블루	㈜더프로액터스
2012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2012	완득이	㈜에이콤인터내셔날
2013	공동경비구역 JSA	CenS
2013	가야십이지곡	창작집단 기능재부
2013	곤, 더 버스커	오픈런뮤지컬컴퍼니
2013	런웨이비트	달 컴퍼니
2013	정글라이프	김선미무용단
2013	주홍글씨(A)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달빛요정과 소녀	극단 차이무
2014	바람직한 청소년	㈜이다엔터테인먼트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봄날	극단 하늘하늘
2014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쇼
2014	아보가토	LSM Company
2014	파리넬리	에이치제이컬쳐
2014	운영(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5	스페셜 딜리버리(맘2맘)	신나는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2015	안녕! 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에어포트 베이비	㈜신시컴퍼니
2015	웰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6	경성특사	비무브드 컴퍼니
2016	광염소나타	아시아브릿지컨텐츠
2016	레드북	바이브 매니지먼트
2016	청춘, 18대 1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7	줄리앤폴	컬처트리
2017	찰리 찰리	㈜연우무대
2017	카라마조프	주식회사 아츠온
2018	마리 퀴리	라이브㈜
2018	재생불량소년	아웃스포큰
2018	HOPE: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알앤디웍스
2019	안테모사	공연창작소 M.A.P.
2019	봄을 그대에게	㈜컬처마인
2019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2019	아티스 ARTIS	㈜홍컴퍼니
2020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2020	히드클리프	㈜엠비제트컴퍼니
2020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랑
2020	인사이드 윌리엄	연극열전

창작오페라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0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코리안챔버오페라단
2011	천 년의 사랑	창음예술
2012	쉰 살의 남자	부평아트센터
2012	아리 아리랑	한오페라단
2013	루갈라	호남오페라단
2016	붉은 자화상	서울오페라앙상블
2017	1953	오페라앙상블C
2018	검은 리코더	(사)라벨라오페라단
2018	인형의 신전	영산오페라단
2019	김부장의 죽음 (원제: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페라뱅크
2019	까마귀 (원제:내가 까마귀였을 때)	라벨라오페라단
2020	뱀이 심장을 먹었어	김앤리프로덕션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펴낸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T. 061-900-2204
F. 061-900-23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사무처장(직무대행) | 박두현
예술창작본부장(예술극장장 겸직) | 송시경

공연예술부
부장 | 홍승욱
공연예술창작산실 기획운영 | 김효은, 정미연, 황금실, 두송희, 박세빈, 신시은
관객개발 | 정미연

극장운영부
부장 | 정영순
대관·기획 | 오선명, 김상희, 정재은, 이유진, 김윤형, 류정숙, 임나래
홍보·마케팅 | 조용주, 정혜민, 이혜리
티켓 | 이주담, 최예솔, 정혜영, 박소영, 황혜정
시설·하우스 | 이기복, 김영훈,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진수영, 김환구, 박동진, 박성국, 윤지환, 유호성

무대기술부
부장 | 진용남
무대팀 | 천원욱, 김예곤, 이동선, 신동환, 유창대,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김혜지
조명팀 | 이주환, 탁형선, 곽현주, 김병구, 이명한, 이태금, 김태진
음향팀 | 도명호, 김동수, 김경남, 허선영, 이제형, 박인규, 남영모

협력사
홍보운영총괄 | (주)아이디어랩
영상제작 | 연두픽처스
공연사진 | 심주호, 유경오, 옥상훈, 하지영
그래픽디자인 | 물질과 비물질

초판 발행일 | 2021.7.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and the artist.